라오스 개황

2024. 9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외 교 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라오스 개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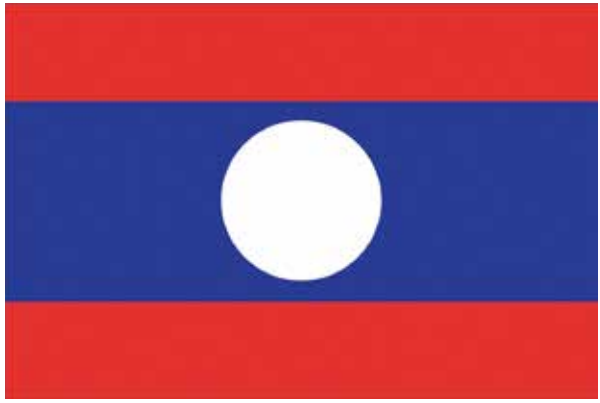
2024. 9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외교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Vientiane

라오스 국기



- 청색은 라오스 국토의 광대함과 번영을, 적색은 라오스인이 국토를 지키기 위해 흘린 피와 용기를, 중앙의 흰 원은 라오스인의 순수한 마음과 건강을 상징

라오스 국가 문장

- 중앙 하단의 붉은 띠에는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국명을 표기, 양옆에는 반원형의 볏단을 두르고 이를 감싼 리본에는 '평화, 독립, 민주주의, 단결, 번영'을 표기하고 있으며, 가운데에는 라오스 불교의 상징인 탓루앙 불탑과 라오스의 발전과 번영을 상징하는 수력발전소, 도로, 삼림과 논, 그리고 톱니바퀴를 배치

연표로 본 라오스 약사

라오족, 중국 남부에서 남하
8세기
13세기
각지에 지방 호족 정치체인 므앙(Meuang) 성립
1353
최초 통일 왕국인 란쌍 왕국 성립
란쌍 왕국이 3개 왕국(루앙프라방(북부), 비엔티안(중부), 참파삭(남부))으로 분열, 태국의 영향권 하에 들어감
18세기
1893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연방에 편입
1954
라오스 독립 (10.22.)
1955
라오인민혁명당 창당(3.22.)
제네바 조약으로 연립정부가 들어섰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비엔티안 정부(왕정)와 '빠텟 라오(라오인민혁명당)' 간의 분쟁 격화
1962
1975
라오인민혁명당, 베트남군 후원 하에 무혈혁명 성공,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수립 선포(12.2.)
1986
시장지향 신경제제도 도입 (제4차 당대회)
1991
헌법 채택
1992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 실시
라오-타이 우정의 다리 건설
1994
1997
아세안 가입
2004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춤말리 국가주석 선출
2006
2011
춤말리 국가주석 재선 성공
ASEM 정상회의 개최
2012
2013
WTO 가입
분냥 국가주석 선출
2016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통룬 국가주석 선출
2021
비엔티안-보텐(중국 국경) 고속철도 개통(12.3.)
2024
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라오스 개관

가. 일반

국 명	라오인민민주공화국(1975년 12월 2일 수립)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수 도	비엔티안(Vientiane) - 인구 : 약 98.9만 명 (2022, 라오스 통계청)
면 적	236,800km^2 (한반도의 약 1.1배)
위 치	북위 14.1-22.3도, 동경 100-108도에 위치한 내륙국가 - 동쪽 베트남(2,069km), 서쪽 태국(1,835km), 남쪽 캄보디아 (435km), 북쪽 중국(505km) 및 북서쪽 미얀마(236km) 등 5개국과 접경
기 후	연평균 기온은 28도 (최고 39도(4월), 최저 10도(12월)) • 5~10월은 우기이며, 연평균 강우량은 약 2,045mm • 11~4월은 건기 (12월, 1월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음)
인 구	약 758만 명 (2023, IMF)
민 족	50개 공식 종족(2018년 12월 라오스 국회 채택) : 라오룸(60%)·라오퉁(30%)·라오숭(10%) 등으로 대별 • 라오룸 : '저지대 라오인'이라는 뜻으로 전 인구의 약 60%를 차지하며, 주로 메콩강 유역에서 수전농에 종사. 언어학적으로는 라오-타이(Lao-Tai)계에 속하고, 정치·경제 등 제반 부문에서 주류 형성 • 라오퉁 : '중간산지 라오인'으로 약 30%를 차지하며, 주로 화전농에 종사 • 라오숭 : '고산지 라오인'으로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며, 라오스 내전 당시 비엔티안 정부 측과 혁명군 측으로 나뉘어 많은 수가 희생. 라오숭 중 가장 수가 많은 몽족은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미국에 협조적이었던 관계로 전후 상당수 해외로 망명
종 교	불교(69.4%), 토속 신앙(28.4%), 기독교(1.5%) 등 -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포교(선교)는 불허
언 어	라오어(성조가 있으며, 태국어와 유사) - 라오어 6성, 태국어 5성
시 차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음

나. 정 치

정부 형태	인민민주공화제
국가원수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국가주석
의 회	단원제 (의원 정수 164명, 임기 5년) • 라오스 유일 정당인 라오인민혁명당에서 추천한 2~3배수 입후보자 중 직접선거로 선출(비례대표제는 없음)
정부 수립일	1975년 12월 2일
유엔 가입일	1955년 12월 14일

다. 경 제

(2023년 기준)

GDP	151.9억 달러
1인당 GDP	2,004.3 달러
경제성장률	3.7%
수 출	99.3억 달러 (전력, 광물, 목재 펄프, 농축산물, 의류 등)
수 입	92.6억 달러 (자동차, 기계류, 전자기기, 유류 및 엔진오일 등)
환 율	1달러=22,023킵(Kip) (2024년 9월 13일 기준)

출처 : IMF, Global Trade Atlas

목 차

Ⅰ 역 사

1. 고대 및 식민 시대 12
2. 독립(공화국 수립) 이후 시대 14

Ⅱ 정 치

1. 정체 : 인민민주공화제 20
2. 행정부 21
3. 입법부 25
4. 사법 및 법률 제도 27
5. 정당 및 단체 29

Ⅲ 외 교

1. 외교정책 기조 및 주요 시책 32
2. 인접국 및 주요국과의 관계 34
3. 국제기구 가입 현황 53
4. 수교국 및 재외공관·외국공관 현황 54

IV | 경 제

1. 경제 개관 58
2. 주요 경제 지표 59
3. 경제 동향 60
4. 경제 정책 68

V | 사회·문화·교육

1. 보 건 72
2. 교 육 79
3. 종 교 81
4. 언 론 82
5. 관 광 85

VI |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88
2. 주요 인사교류 현황 89
3. 경제·통상 관계 92
4. 문화·인적 교류 99
5. 영사·동포 관계 104
6. 협정 체결 현황 106

VII 북한과의 관계

1. 기본 관계 108
2. 정무 관계 109
3. 경제·통상 관계 113
4. 협정 체결 현황 114

VIII 부 록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118
2. 한-라오스 간 수교 공동성명서 124
3. 라오스 외교부 조직 현황 125
4. 라오인민혁명당 중앙위원 명단 126
5. 양국 역대 대사 명단 131
6. 양국 대사관 정보 133
7. 약어 정리 134

I

역 사

1. 고대 및 식민 시대
2. 독립(공화국 수립) 이후 시대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 고대 및 식민 시대

- 라오족은 8세기경부터 중국 남부로부터 하천을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으며, 13세기경 몽골의 세력 확대에 따라 라오족을 포함한 태국계 민족들의 이동이 가속화되면서 각지에 므앙(Meuang)이라 불리는 호족정치체 성립

- 이 중 라오계가 건국한 국가는 현재의 태국 치앙마이를 중심으로 한 '란나' 왕국과 루앙프라방을 중심으로 한 '란쌍' 왕국(백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인데, 란나 왕국의 쇠퇴로 인해 1353년 세워진 란쌍 왕국이 라오스의 대표 왕국이 됨

- 란쌍 왕국은 한때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면적이 큰 왕국 중의 하나였으며 현재의 태국 동북부 지역에까지 이르렀으나, 후계를 둘러싼 내분 및 미얀마, 베트남, 태국의 침략으로 인해 서서히 쇠퇴하였고, 18세기 초에는 루앙프라방(북부), 비엔티안(중부) 및 참파삭(남부) 왕국으로 분열되어 태국의 영향권 하에 놓임

- 비엔티안 왕국은 1820년대에 참파삭 왕국과 연합하여 태국에 반기를 들었다가 실패, 비엔티안까지 유린당하였으며, 한때 태국 영토에 편입
  - 현재 방콕의 왕궁 사원에 있는 에메랄드 불상은 이때 비엔티안에서 약탈
  - 19세기 말엽까지 루앙프라방 왕국만이 태국의 속국으로서나마 국가의 형태 유지

- 1893~1907년 사이에 맺어진 프랑스-태국 간 조약에 따라 프랑스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로서 현재의 라오스 영역을 지배하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말 잠시 일본의 군사 점령 하에 있다가 1954년 프랑스와 라오스 간의 조약에 따라 완전 독립

- 식민화 과정에서 루앙프라방 왕국은 보호령, 여타 라오스 지역은 직할 식민지로 구별되어 통치를 받다, 프랑스 패퇴 후인 1946년경 독립선언과 함께 루앙프라방 왕을 전체 라오스 국왕으로 선포

2. 독립(공화국 수립) 이후 시대

- 독립 후에도 국내의 좌파, 중립파, 우파의 대립이 계속되었고 인도차이나 전쟁을 둘러싸고 열강까지 개입하여 내전이 이어졌으며, 1962년 제네바 조약의 성립으로 연립정부가 들어서기도 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고 친서방의 비엔티안 정부(왕정)와 좌파 '빠텟 라오' 간의 분쟁이 격화

- 1973년 미국-베트남 간의 파리평화협정 성립과 함께 라오스에서도 정전협정이 맺어져 연립정부가 들어섰으나, 그 후 1975년 인도차이나 반도 정세가 급변하면서 라오스에서도 빠텟 라오가 실권을 장악

- 1975년 8월 23일 라오애국전선은 비엔티안 정부 측을 제압하고 무혈혁명에 성공, 같은 해 12월 2일에는 왕정을 폐지하고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수립했으며, 그 후 라오스는 카이손 폼비한(Kaysone Phomvihane) 라오인민혁명당 서기장 겸 총리의 지도 하에 사회주의 국가 건설 추진

- 1986년 라오인민혁명당 제4차 전당대회에서 경제개방 및 시장경제 원리를 주축으로 하는 신경제제도(NEM, New Economic Mechanism)를 도입, 국영기업의 민영화, 은행제도 및 세제개혁, 외국인 투자 유치법 제정 등 시행

- 1991년 태국과 안보협력협정 체결

- 1991년 8월 15일 헌법이 채택되고, 이 헌법에 따라 1992년 12월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 실시
  - 라오스 헌법은 혁명 15주년을 기념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기본 이념은 제5차 전당대회의 노선을 답습하여 일당제 유지를 고수하고 있으나, 라오스가 근대 법치국가로서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라오스의 국부 격인 카이손 폼비한 전 총리는 헌법 문안에 큰 영향을 미쳤고, 과거 의전적 지위에 불과하던 국가주석의 권한이 헌법에 따라 대폭 강화
- 카이손 전 총리는 헌법 채택 직후(1991년 8월) 국가주석직을 이어 받았으나, 1992년 11월 사망

• 1994년 라오스 비엔티안과 태국 농카이를 잇는 '라오-타이 우정의 다리' 건설

• 1995년 미국은 20년간 지속된 원조 봉쇄 해제

• 1997년 아세안 가입을 국회에서 비준, 아시아 금융위기로 라오스 통화인 킵(Kip)의 가치 폭락

• 1998년 캄따이 시판돈(Khamtay Siphandone) 총리가 제4대 국가주석에 당선

• 2000년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공산화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중 폭탄 테러 수차례 발생

• 2000년 라오스 중앙정부는 지방 분권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자치권 및 예산권 보장

• 2001년 3월 캄따이 시판돈 국가주석이 재선에 성공, 4월 IMF로부터 4,000만 달러의 자금을 대출, 12월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라오스 내 7만여 명의 영양실조 어린이들을 위한 3개년 개선 방안 시행

• 2004년 4월 세계은행으로부터 남튼 수력발전용 댐 건설 프로젝트를 위한 대출을 승인받고, 11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비엔티안에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가원수 최초로 라오스 방문), 같은 달 미국은 라오스에 대해 기존 제재 목적의 추가관세제도를 폐지하고 정상교역관계(NTR :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부여

- 2006년 춤말리 사야손(Choummaly Sayasone) 부주석이 당서기장 겸 제5대 국가주석으로 선출
  - 캄따이 시판돈 국가주석과 춤말리 사야손 국가주석은 모두 국방장관 출신

- 2010년 4월 중국 정부와 라오스 정부는 중국 윈난성에서 수도 비엔티안까지 이르는 421km 길이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사업 규모 약 60억 달러), 12월 부아손 부파반(Bouasone Bouphavanh) 총리가 가정문제로 사임하고 통싱 탐마봉(Thongsing Thammavong) 국회의장을 총리에 임명

- 2011년 1월 비엔티안에 증권거래소 개설

- 2011년 6월 춤말리 사야손 국가주석이 국회에서 재선을 승인받아 임기 5년 연장

- 2012년 7월 미 국무장관으로는 최초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라오스 방문

- 2012년 11월 비엔티안에서 제9차 ASEM 정상회의 개최(김황식 국무총리 참석)

- 2013년 WTO에 정회원으로 가입

- 2014년 5월 라오스 씨엥쿠앙주에서 군용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당시 국방부 장관(당서열 7위), 공안부 장관(당서열 12위), 비엔티안 시장(당서열 14위), 당 선전위원장(당서열 16위) 등이 사망

- 2016년 1월 제10차 라오인민혁명당 전당대회에서 부주석이던 분냥 보라칫(Bounnhang Vorachith)이 당서기장에 임명되었으며, 2016년 4월 개원한 국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

- 2016년 9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비엔티안에서 제28차 아세안 정상회의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개최(박근혜 대통령 참석)

- 당시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오바마 대통령이 라오스를 방문, 라오스 내 베트남전 불발탄(UXO) 제거를 위해 9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하기로 합의

- 2016년 12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보텐(북부 중국과의 접경 도시) 간 총길이 414km의 고속철도 건설 착공하여 2021년 12월 3일 정식 개통

- 2021년 1월 제11차 라오인민혁명당 전당대회에서 총리이던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이 당서기장에 임명되었으며, 2021년 3월 개원한 제9대 국회에서 국가주석으로 선출, 판캄 비파반(Phankham Viphavanh) 총리와 함께 신정부 구성
  - 2022년 12월 제4차 정기국회에서 판캄 비파반 총리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상임부총리를 총리에 임명

II

정 치

1. 정체 : 인민민주공화제
2. 행정부
3. 입법부
4. 사법 및 법률 제도
5. 정당 및 단체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 정체 : 인민민주공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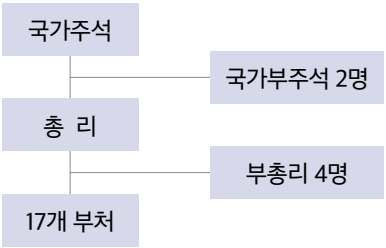
- 1975년 12월 2일 개최된 전국인민대표자회의에서 왕정이 공식 폐지되면서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수립
  -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은 인민의 주권이 라오인민혁명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제도를 통해서 행사되며, 모든 권한은 노동자·농민·지식인을 기본적 구성 요소로 하는 전 인민의 이익을 위해, 인민에 의해 행사되는 인민민주국가라고 규정(헌법 제1장)

- 경제면에서는 개혁개방 정책을 택하고 있으나, 정치면에서는 라오인민혁명당을 중심으로 1당 체제가 지속되고 있고, 국가원수인 국가주석, 행정수반인 총리와 국회의장 등 정부 요직이 당 중앙위원회의 최고의사결정 담당 정치국원을 겸임하는 집단지도체제

2. 행정부

가. 중앙정부

- 국가주석은 국가원수로서 국회의 의결(출석 의원 2/3 이상)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 현(現) 통룬 시술릿(Thongloun Sisoulith) 국가주석은 2021년 3월 제9대 국회 개원식에서 선출
- 총리는 국회의 승인을 받아 국가주석이 임명하며, 행정부를 지휘·감독
  - 현(現) 손싸이 시판돈(Sonexay Siphandone) 총리(前 상임부총리)는 2022년 12월 제4차 정기국회에서 임명



- 총리실 장관 : 3명
  - Buakhong Nammavong 장관 : 총리실 업무 총괄(2024.5월 신규 임명)
  - Sinava Souphanouvong 장관 (前 에너지광산부 차관, 2024.2월 신규 임명)
  - Khamjane Vongphosy 장관 (前 기획투자부 장관, 2024.5월 신규 임명)
- 정부 구조 개편
  - 2021년 3월 출범한 라오스 신정부는 정부 기관의 감사를 담당하는 감찰원과 감사원을 국가주석 직속 기구로 개편하여 감사 조직 독립성

강화 및 국가주석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 조직은 기존 18개 부처 및 3개 장관급 기관에서 17개 부처 및 2개 장관급 기관(총리실 및 라오스 중앙은행)으로 조직 개편(과학기술부를 해체하고 우정통신부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기술통신부로 명칭 변경)

- 2022년 6월 제9대 국회 3차 정기국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부총리 2명 추가 임명 및 산업통상부 장관과 라오스 중앙은행장을 교체
- 2024년 5월 라오스 정부는 총리실 수석장관, 기획투자부 장관, 농림부 장관 및 내무부 장관 등 장관 4명을 교체

• 역대 국가주석

- 초대	Souphanouvong	1975.12.~1991.8.
	Phoumi Vongvichit(권한대행)	1986.10.~1991.8.
- 2대	Kaysone Phomvihane	1991. 8.~1992.11.
- 3대	Nouhak Phomsavanh	1992.11.~1998.2.
- 4대	Khamtai Siphandone	1998.2.~2006.6. (2회 연임)
- 5대	Chommaly Sayasone	2006.6.~2016.4. (2회 연임)
- 6대	Bounnhang Vorachith	2016.4.~2021.3.
- 7대	Thongloun Sisoulith	2021.3.~

• 역대 총리

- 초대	Kaysone Phomvihane	1975.12.~1991.8.
- 2대	Khamtai Sinphandone	1991.8.~1998.2.
- 3대	Sisavath Keobounphanh	1998.2.~2001.3.
- 4대	Bounnhang Vorachith	2001.3.~2006.6.
- 5대	Bouasone Bouphavanh	2006.6.~2010.12.
- 6대	Thongsing Thammavong	2010.12.~2016.4.
- 7대	Thongloun Sisoulith	2016. 4.~2021. 3.

- 8대 Phankham Viphavanh 2021.3.~2022.12.
- 9대 Sonexay Siphandone 2022.12.~

• 각료 명단(17개 부처)

직 위	성 명
총리(Prime Minister)	Sonexay Siphandone
상임부총리(Deputy Prime Minister)	Kikeo Khaykhamphithoune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Deputy Prime Minister &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Chansamone Chanyalath
부총리 겸 공안부 장관(Deputy Prime Minister & Minister of Public Security)	Vilay Lakhamfong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Deputy Prime Minister &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aleumxay Kommasith
기획투자부 장관 (Minister of Planning and Investment)	Phet Phomphiphak
기술통신부 장관 (Minister of Technology and Communications)	Boviengkham Vongdara
농림부 장관(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estry)	Linkham Douangsavanh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Minister of Natural Resources & Environment)	Bounkham Vorachit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Welfare)	Baykham Khattiya
공보문화관광부 장관 (Minister of Information, Culture and Tourism)	Suanesavanh Vignaket
재무부 장관(Minister of Finance)	Santiphab Phomvihane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Minister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Ngampasong Muongmany

직 위	성 명
교육체육부 장관 (Minister of Education and Sports)	Phout Simmalavong
보건부 장관(Minister of Public Health)	Bounfeng Phoummalaysith
법무부 장관(Minister of Justice)	Phayvy Syboualypha
내무부 장관(Minister of Home Affairs)	Vilayvong Bouddakham
에너지광산부 장관(Minister of Energy and Mines)	Phoxay Sayasone
산업통상부 장관 (Minister of Industry and Commerce)	Malaithong Kommasith

나. 지방 정부

- 17개 주와 1개 특별시(Vientiane Municipality)로 구성

- 주의 예하 행정 구역으로 시(나콘), 군(므앙), 촌(반)의 구조로 구성
  - 2018년 4월 11일자 총리령으로, 경제사회개발 가속화·업무효율 및 세금 징수의 책임과 의사결정 확대를 위하여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유명한 루앙프라방, 라오스 남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인 사바나켓주의 주도 카이손 폼비한 및 참파삭주의 주도 팍세 등 3개 지역을 기존 군(므앙)에서 시(나콘)로 승격

    ※ 지방행정법에 따라 신규 3개 시는 주청 산하 상태를 유지하고, 기존 군 단위에 준한 지위를 유지(시장도 군수급 지위 유지)하기로 함(각 시는 인구가 6만 명 이상이어야 하고, 재정적으로 독립 가능해야 함)

- 주지사와 비엔티안 시장은 총리의 제청에 따라 국가주석이 임명

3. 입법부

- 국회는 단원제이며, 의원 정수는 164명(여성 의원 36명)이고, 임기는 5년
  - 현(現) 제9대 국회는 2021년 2월 총선에 따라 구성(인구 5만 명당 국회의원 1명 선출을 기준으로 하나, 2020년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으로 제8대 149명에서 15명 증가한 164명(여성 36명 포함) 선출)
    ※ 국회의원선거법(2020년 개정) : 인구 25만 명 이하 소규모 주(州)의 최소 국회의원 수를 6명으로 상향 조정(기존 대비 1명 추가)하고, 인구 25만 명 이상 대규모 주(州)는 인구 5만 명 증가 시 의원 1명 추가 증원 가능하나, 선거구별 최대 국회의원 수는 20명으로 제한(기존 대비 1명 추가)
  - 싸이솜폰 폼비한(Xaysomphone Phomvihane, 정치국원, 당서열 5위)이 2021년 3월 제9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으로 선출(임명 형태)

- 의원들은 전원 라오스의 유일 정당인 라오인민혁명당(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소속이자, 당 산하단체인 라오국가개발전선(Lao Front for National Development)의 일원
  - 2021년 2월 21일 실시된 제9대 총선에서는 국영기업인 출신 3명, 민간 기업인 출신 6명 등이 당선된 바 있으나, 당선 후 라오인민혁명당에 입당

- 정기국회는 연 2회 개최되며, 국회는 헌법 승인 및 수정, 법률 개폐 및 수정, 국가 주요 정책 승인, 국가주석 선출, 총리 및 장관 임명 등의 권한 보유

- 의원은 직접·보통 선거로 선출되며, 피선거권은 만 21세 이상,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성인에게 부여
  - 각 선거구(총 18개 선거구 : 17개 주 및 수도 비엔티안) 주민은 자신의 선거구에 배정된 국회의원 수만큼 복수로 투표하며 득표 순으로 선출
  - 201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1년 2월 총선과 함께 제2대 지방선거를 실시(총 788명의 입후보자 중 492명(여성 150명 포함)의 지방의원 선출, 제1대 대비 132명 증가)

• 라오스 국회는 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분야별 위원회인 ▲외교위원회 ▲기획재정감사위원회 ▲법률위원회 ▲경제기술환경위원회 ▲문화사회위원회 ▲소수민족위원회 ▲사법위원회 ▲국방공안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사무처(Cabinet) 등으로 구성

- 상무위원회는 국회의 상설 지도 기구로서 기능위원회를 지도하며, 정기국회 외 기간 국회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역할 수행
- 국회의장, 부의장 5명, 9개 위원회 위원장, 사무처장(chief of cabinet) 등 총 16명으로 구성
- 사무처(cabinet)는 6개의 국과 행정 업무 관련 부서(행정재정국, 자료수집국, 인사국, 민원국, 정보도서관센터, 국회간행물국 등)로 구성

4. 사법 및 법률 제도

가. 사법제도

- 최고재판소로서 대법원(Supreme People's Court)이 있고, 주 및 군별로 지방인민재판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최고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임명
  - 대법원장 : 비엥통 시판돈(Viengthong Siphandone, 前 국가감사원장, 당 중앙위원, 당서열 18위)
- 재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로 진행되며, 법률고문평의회가 국선 변호사로서 피고인을 변호
- 독립기관으로서 중앙의 최고인민검찰청 및 주·군별로 지방검찰 조직 구성
  - 검찰총장 : 싸이사나 콧푸톤(Xaysana Khotphouthone, 前 대검찰청 차장, 당 중앙위원, 당서열 63위)

나. 헌법 및 여타 법률

- 오랜 프랑스 식민 지배(1899~1954) 영향으로 불문법계의 법체계 유지
  - 1980년대 후반까지 성문법 체계를 갖추지 못했으며, 라오인민혁명당의 결정, 지침 등 형태로 국가 운영
  - 프랑스로부터의 독립 이후에도 오랜 내전과 정권 변동 등 불안정한 정치 상황의 영향으로 1993년부터 비로소 관보 발행 시작, 2000년대 이후 성문법 체계 정비 작업 진행 중
- 헌법은 1991년 8월 15일 제정·공포된 이후, 2003년 4월 제5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개정

- 2차 헌법은 전문 및 11장 9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헌법 및 법의 준수 의무', '시장경제 및 경제활동 자유', '비판권 및 청원권 등 국민의 기본권', '법의 지배'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신설
- 라오스 헌법 개정 절차 : 국회의원 정원 2/3 찬성, 국회 의결 후 국가주석령으로 공포

• 라오스 헌법의 기본 이념은 1991년 3월 제5차 전당대회의 노선을 따라 정치적으로는 일당제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와 개방경제를 지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기본적 인권의 존중·거주 이전의 자유·언론 결사의 자유·교육과 취직의 권리 등도 규정

• 2015년 12월 라오스 제7대 국회는 두 번째로 헌법을 개정. 주요 개정 내용은 ▲국가주석 연임을 2회(각 5년)로 제한(관행적으로 2회까지 연임하였으나 명문화) ▲의회의 행정부 인사 임면, 재정 감독 등 권한 강화 ▲지방의회 신설 등

• 헌법 외에 2024년 8월 현재 총 194개(국정운영 및 사법 부문 43개, 국방 및 공안 부문 13개, 경제 부문 90개, 사회문화 부문 44개, 외교 부문 4개)의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세부 법률을 제정하는 대신 입법 사항을 시행령 형식으로 제정하여 공포·시행

• 라오스 제9대 국회(2021~2025)는 2025년 제3차 헌법 개정을 목표로 당 중앙위 정치국에서 승인한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 싸이솜폰 폼비한 국회의장)를 통해 당 조직 및 대중 조직, 경제·사회 문제, 국가권력, 국방 및 공안 분야 개정안 마련 중

5. 정당 및 단체

가. 라오인민혁명당(LPRP : Lao People's Revolutionary Party)

- 1930년 창설된 베트남의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모델로 1955년 3월 22일 결성, 현(現) 당서기장은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이며, 당원 수는 약 30만 명
  - 당 중앙위원회 위원은 정치국원 13명을 포함한 정위원 총 71명 및 예비위원 10명
- 당의 기본 지도 노선은 인민민주제의 확립을 통해 평화, 독립, 단합, 번영된 라오스를 건설하는 것
- 중앙위원회 외에 주 및 하부 행정 단위별로 지방위원회가 있으며, 전당대회는 5년에 1회, 당 중앙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여 당의 지도 방침,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 등을 결정
- 당의 산하 및 외곽 단체로 라오국가개발전선, 노동조합연맹, 청년연맹, 여성연맹, 세계평화위원회, 불교연맹, 각국들과의 친선협회 등이 있음

나. 라오국가개발전선(LFND : Lao Front for National Development)

- 라오인민혁명당의 활동을 돕는 민족통일전선 성격의 대중 동원 조직으로서 ▲지역주민 협동조합 설립 ▲농촌 개발에 대한 정신 개혁 및 생활 향상 촉진 ▲다민족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민족통합 도모 등 역할
- 1979년 전신인 라오애국전선을 대체하여 평화, 독립, 사회주의 건설 완성을 위한 목적으로 창설

- 1950년 8월 13일 라오자유전선(Lao Front of Freedom) 창설 → 1956년 1월 6일 라오애국전선(Lao Front of Patriots)으로 명칭 변경 → 1979년 라오국가건설전선(Lao Front for National Construction)으로 명칭 변경 → 1999년 라오국가개발전선(Lao Front For National Development)으로 명칭 변경
- 의장 : 신라봉 쿳파이툰(Sinlavong Khoutphaythoune, 당서열 8위)

• 주요 행동 강령

- 민족단합의 힘 발휘
- 노동동맹을 기초로 한 민족통일전선의 강화
-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촉진
- 국방·경제·문화의 건설과 발전에 이바지
- 당과 국가의 외교정책 수행에 기여

III

외 교

1. 외교정책 기조 및 주요 시책
2. 인접국 및 주요국과의 관계
3. 국제기구 가입 현황
4. 수교국 및 재외공관·외국공관 현황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 외교정책 기조 및 주요 시책

- 5개국(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라오스는 대외관계에서 '평화·자주·우호·협력 관계 유지, 내정 불간섭'이라는 원칙 하에 균형적인 외교정책을 전개

- 라오스는 1975년 베트남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공산화에 성공한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구소련 붕괴 이후에는 자국의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베트남·중국·태국 등 주변국과 균형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1997년 아세안 가입 이래 아세안 국가들과 공동보조를 취함
  - 아울러 외국인 투자 유치 및 ODA를 통한 경제발전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개발원조 공여국과의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

- 라오스는 내륙국가로서의 단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2008년에는 메콩경제권(GMS : Greater Mekong Subregion) 정상회의를 개최, 대표 사업인 '동서회랑', '남북회랑' 건설사업 관련 물류 이동의 중심에 위치하는 지리적 이점을 강화하는 지역 외교를 추진, 2010년에는 확산탄금지협약(CCM) 제1차 당사국총회 주최, 2012년에는 최저개발국으로서는 최초로 제9차 ASEM 정상회의 개최, 2016년에는 2004년에 이어 아세안 의장국을 재수임하면서 아세안 정상회의 및 각종 각료급 회의 개최에 많은 역량을 투입, 비교적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의 역할과 활동을 점차 확대
  - 2024년 '연계성과 회복탄력성 강화' 주제로 세 번째 아세안 의장국 수임

- 라오스는 공산혁명 당시부터 베트남과 '특수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과의 협력도 중시

- 한편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인 라오스 비엔티안-중국 보텐 간 고속철도가 2021년 12월 3일 개통되었고, 라오스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여 내륙국(land-locked country)에서 내륙 연계 국가(land-linked country)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양한 인프라 개발을 통한 주변국 및 유럽과의 무역과 인적교류 확대 기대

2. 인접국 및 주요국과의 관계

가. 베트남

- 라오인민혁명당은 1950년대 독립투쟁 시부터 1975년 공산혁명까지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한 베트남 공산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으며, 1976년 양국 공동성명에서는 양국 관계를 '특별 관계'로 규정했고, 1977년 7월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여 국방 부문까지 협력을 확대
  - 1979년 중국-베트남 분쟁(중월전쟁) 시 베트남을 지지
  - 라오스는 베트남과는 가장 높은 수준인 '특수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과는 그다음 단계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라오스에게 있어서 베트남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이며 후발 아세안 가입국가로서 대외개방을 통한 경제개발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벤치마킹의 대상인바, 최근 당·정 고위인사 교류 및 민간 교류 확대와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대(對) 라오스 투자국 중 중국과 태국 다음으로 3위를 차지

-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 베트남 총리는 2017년 4월 라오스를 첫 공식방문하여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와 라오스-베트남 수교(1962.9.5.) 55주년 및 우호협력조약 체결 40주년을 기념하여 '2017 라오스-베트남 우정의 해'를 선포하고, 양국 연계성을 강조하는 인프라 개발 관련 9개 협력사업 합의서를 체결
  - 주요 협력 사업으로는 베트남 붕앙(Vung Ang) 항구 개발(50년 양허) 합작투자 사업과 라오스-베트남 양국 간 철도(비엔티안-타켁-무야-붕앙) 건설 사업으로, 동 항구 개발 완료 시 양국 간 교류 증대는 물론, 내륙국가인 라오스가 베트남 항구를 통한 물류 비용 절감 및 해상 출구 확보 효과 기대

• 2017년은 라오스-베트남 우정의 해로 양국 간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분냥 보라칫 국가주석(2017.12.), 통룬 시술릿 총리(2017.10.), 빠니 야토투 국회의장(2017.3.), 판캄 비파반 국가부주석(2017.7.) 등이 베트남을 방문

- 베트남 정부는 1억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여 라오스 국회 청사 신축 기증 : 2017년 11월 착공, 2021년 3월 완공해 라오스 제9대 국회 개원식(2021.3.22.)부터 이용 개시(지하 1층 및 지상 5층, 800~1,000명 수용 규모)

• 2018년 2월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라오스를 방문하여 제40차 라오스-베트남 협력위원회 회의를 주최하고, 라오스의 해상 무역 접근을 위한 베트남 하틴성 내 붕앙항 공동개발협정, 라오스 전기 수출을 위한 송전선 투자협정 등을 체결, 6월에는 당 티 응옥 틴(Dang Thi Ngoc Thinh) 베트남 국가부주석이 라오스를 공식방문하여 ▲양국 간 전통적인 특별 연대 유지를 위한 교육 협력 ▲국경 지역 치안 유지, 인신매매 및 마약밀매 방지 협력 강화 ▲라오스 내 베트남 기업 운영 협력 및 라오스 내 투자 사업 이행 촉구 등 협의

• 2019년에는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라오스를 방문하여 전력 및 광산 분야, 비엔티안-붕앙항 철도건설사업 관련 등 9개 협력사업에 대해 양국 정상 간 합의

- 주요 협력사업은 ▲양국 재무부 간 차관 관련 협력 ▲전력 개발 및 광산 분야 협력 ▲라오스 비엔티안-베트남 하틴성 붕앙항 연결(총연장 555km / 라오스 452km, 베트남 103km) 철도건설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 등 세부 협력 ▲기후변화 대응 및 동식물 보존 협력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지리 정보 및 천연자원 환경 정보 공유 협력 ▲라오스 라디오 방송국 장비 교체 ▲후아판주 농업기술서비스센터 설립 ▲라오스 카이손 폼비한 박물관과 캄무안주 내 호치민기념관 보수사업 협력 ▲과학 연구 및 기술개발 관련 역량 강화 등

• 2021년에는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으로 양국을 상호 방문

- 2022년 1월 판캄 비파반 라오스 총리는 취임 이후 베트남을 처음 공식 방문하여 안보, 국경관리, 경제, 금융, 교육, 보건 및 전력 분야 등 8개 부문 협력협정을 체결했으며, 라오스-베트남 정부가 공동개발 중인 붕앙항(베트남 중부 하틴성 소재) 건설 사업의 라오스측 지분을 종전 20%에서 60%로 확대 추진하는 협정 체결
  - 양국 수교 60주년 및 우호협력조약 체결 45주년을 기념하여 2022년 라오스-베트남 우호연대의 해를 출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빠니 야토투 국가부주석(2022.4.), 빌라이 라캄퐁 부총리 겸 공안부 장관(2022.10.) 등이 베트남을 공식방문

- 2023년 1월 팜 밍 찡 베트남 총리는 라오스를 공식방문하여 제45차 라오스-베트남 협력위원회 회의를 공동주재하고, 양국 외교부 간 협력, 민사, 디지털 파트너십, 인적자원개발, 보건, 양국 중앙은행 및 교통부 간 협력 등 10건의 협력협정 체결

- 2023년 4월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은 취임(2023.3.2.)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라오스를 공식방문하여 2024년 라오스의 아세안 의장직 성공적 수행 및 제1차 CLV 의회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1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양국의 기술혁신 및 과학 부문 협력협정 체결

- 2023년 12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제1차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V) 의회 정상회의를 개최,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개발 삼각지대(CLV-DTA : CLV Development Triangle Area) 거주 국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국방·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2차 회의는 2년 후 베트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
  - 202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43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 계기에 3국 국회의장이 기존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CLV) 외교위원회 회의를 CLV 의회 정상회의로 격상

- 2024년 1월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는 베트남을 공식방문하여 양국 총리실 협력, 국경수비, 국경무역 인프라 개발 및 교육·체육 부문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전력업체 간 전력 매매 협력 확대 및 2023년 5월 농캉공항(7,400만 달러 규모 베트남 차관으로 라오스 후아판주에 신공항 건설) 개항 성과 평가

- 2024년 7월 또 럼 베트남 국가주석은 취임(2024.5.) 이후 첫 해외 방문지로 라오스를 국빈방문해 범죄인인도조약, 신분증 관리시스템, 항공운송 분야 협력(라오스 내 항공정비단지 설립 및 비엣젯항공 아카데미 운영), Sekhaman Ⅲ 수력발전 양허, 세콩주 닥청군 보크사이트 채굴·가공 및 알루미늄 제조 공장 건설, 안티몬 조사 및 탐사 등 7건의 협력 협정 체결
  - 라오스의 2024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 지원을 위해 Vinfast 전기차 20대 전달
- 2024년 7월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은 응우옌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 서거 시에 조문사절단으로 베트남 직접 방문

나. 태국

- 태국과는 역사적·경제적으로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라오스로 들어오는 수입 물자의 대부분은 태국을 경유하고 있고 일반 생필품도 대부분 태국에서 반입되는 등 경제면에서 태국에 크게 의존
  - 태국은 중국·베트남과 더불어 라오스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국의 하나이며,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수력 전력의 대부분이 태국으로 수출
  - 2017년 9월 라오스-태국-말레이시아가 최초로 100MW 규모의 전력 교역 관련 다자협정을 체결(라오스에서 생산한 전력을 태국의 기존 송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태국에 송전 수수료를 지불하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아세안 전력망 협력의 대표적인 사업)
  - 태국 동북부의 이산 지역과는 민족적으로 그 연원이 같으며, 동일 어족에 속해 있고 단어도 유사해 문화적으로 태국의 영향을 많이 받음

• 라오스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래 메콩강을 사이에 두고 양국 간에 소규모 충돌이 계속되는 등 긴장 관계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라오스가 경제개방 정책을 채택하면서 양국 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하여 메콩강 국경 획정 문제, 경제원조 문제 등을 논의하는 공동위원회가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태국 총리는 대체로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라오스를 선택하는 등 양국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

- 2009년 말 태국 정부는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불구, 라오스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태국에 체류 중인 라오 몽족 전원(4,537명)을 라오스로 송환
- 2010년 12월 웨차치와(Vejjajiva) 태국 총리는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라오스를 방문했고, 통싱 탐마봉 총리는 2012년 5월 태국을 방문
- 태국 정부는 2012년부터 팍세 공항 확장, 상수도 공급, 도로 건설 등을 위한 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3년 말 라오스 보께오주와 태국 치앙라이를 잇는 교량 개통
- 2014년 11월 쁘라윳(Prayut) 태국 총리가 라오스를 공식방문했으며, 2015년 5월 통룬 시술릿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양국 수교 65주년을 기념하여 태국을 방문한 데 이어, 2016년 7월에는 총리 자격으로 태국을 공식방문하고, 2016년 8월 살름싸이 꼼마싯 외교부 장관이 태국을 공식방문
- 2016년 7월 통룬 시술릿 총리가 태국을 공식방문하면서 양국 간의 전기 매매 협약을 체결해 태국이 기존에 매년 구매하던 7,000MW의 전기를 2025년까지 9,000MW로 확대하기로 합의
- 2022년 6월 판캄 비파반 총리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태국을 공식방문, 양국 관계를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5개년(2022~2026년) 행동계획 체결
- 2023년 10월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취임 이후 처음으로 라오스를 공식방문하여 ▲라오스 비엔티안과 태국 농카이주 연결 철도 교량 건설을 위한 차관 제공 및 관광철도 운영 협의 ▲태국 동부 우본

랏차타니와 라오스 남부 사라반주 연결 제6 우정의 다리 건설 합의 ▲양국 상품 수출입 시 물류 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 수송 시스템 개선 방안 검토 ▲초국경적 연무 문제 해결을 위한 라오스-태국-미얀마 공동 행동계획 마련 협의 ▲라오스-태국 철도 건설 2단계 사업인 비엔티안시 소재 캄사밧(Khamsavath) 기차역 개통식 참석

- 라오스와 태국 간 메콩강을 가로질러 국가 간 연결된 다리, 즉 우정의 다리를 통해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초의 양국 간 다리는 태국의 동북부 농카이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을 연결하는 1,170m의 다리로, 라오스를 외부로 연결한 최초의 기념비적 다리이며, 호주의 지원으로 건설되어 1994년에 개통
  - 이후에도 제2의 우정의 다리(태국 동부 묵다한과 라오스의 사바나켓 연결), 제3의 우정의 다리(태국의 나콘파놈과 라오스의 타켁을 연결), 제4의 우정의 다리(태국의 북부 치앙콩과 라오스의 훼이싸이를 연결) 개통
  - 2019년 6월, 양국은 GMS와 ACMECS 협력의 일환으로 제5의 우정의 다리(태국의 붕깐주와 라오스의 보리캄싸이주 연결 / 총 사업비 12,666만 달러) 건설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제5의 우정의 다리가 완공될 경우, 태국 붕깐에서 출발-라오스 보리캄싸이주 8번 국도를 통과-베트남의 응에안 주로 연결(약 150km 길이)되어, 베트남 하노이와 다낭 등을 연결하는 주요 노선이 되어 보리캄싸이주가 육상 교통로로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제6의 우정의 다리(라오스의 사라반주와 태국의 우본랏차타니주 연결)도 건설 중

- 라오스와 태국을 연결하는 철도는 태국 농카이와 라오스 타나랭 구간을 연결(3.5km)하는 1단계 사업이 2009년 완공, 타나랭과 비엔티안 시내 중심 연장(7.5km) 2단계 사업이 2023년 완공으로 비엔티안-중국 간 고속철도와 연계, 라오스는 내륙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인도차이나 반도의 물류 이동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
  - 2023년 10월 라오스-태국 철도 건설 2단계 사업인 비엔티안시 소재 캄사밧(Khamsavath) 기차역 완공 및 2024년 7월 라오스 비엔티안-태국

방콕 구간 직통 여객열차 운행 개시로 라오스-중국 철도 연장선상의 관광 교류 및 물류 촉진 기대

- 또한 양국은 라오스 참파삭주-태국 우본랏차타니주 연결 철도 및 라오스 캄무안주 타켁시-태국 나콘파놈주 연결 철도 건설 추진 중

다. 중국

- 1979년 중국-베트남 분쟁 시 라오스가 베트남을 지지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였으나, 분쟁 종료 후 '중국을 위시한 사회주의 국가와의 전면적 협력 관계'라는 구호 아래 양국 관계 개선
  - 특히 1989년 10월 카이손 폼비한 전 총리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완전 정상화

- 중국은 경제력 및 라오스 지도부 내 친중 인맥을 바탕으로 제조업·광업·도소매업 등 여러 분야에서 직접투자를 증대하며 영향력 강화 시도 중
  - 중국은 라오스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바, 2001년까지만 해도 전체 투자액이 7,5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은 198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34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현재 대(對)라오스 FDI 규모에서 최대 투자국

- 2000년 11월 장쩌민(江澤民) 주석이 중국 정상 최초로 라오스를 방문한 이후 양국 지도부의 상호 방문 활발
  - 2006년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2008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2010년 시진핑(習近平) 부주석, 2011년 원자바오 총리 등이 라오스를 방문
  - 2009년 9월에는 춤말리 사야손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고, 2013년 10월 재차 중국을 방문
  - 2014년 8월에도 춤말리 사야손 국가주석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2015년 9월 중국의 전승절 기념행사에도 중국을 방문

- 2016년 4월 20일 분냥 보라칫 국가주석이 베트남에 이어 중국을 두 번째 순방국으로 방문

• 중국은 2009년 라오스 개최 동남아시아 경기대회 주경기장 건설을 위해 총 8천만 달러의 자금을 제공하였고, 루앙프라방 국제공항 확장 공사를 위해 8,600만 달러의 유상원조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라오스에 대한 개발원조를 강화

※ 중국 정부는 ▲2012년 제9차 ASEM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정상 빌라, National Convention Center 건설 등에 대규모 유·무상 원조 제공 ▲2012년 11월 ASEM 정상회의 계기 중국 원자바오 총리 방문 시 철도 협력, 통신위성 제작, 섬유광학 개발 등 12개 협력 사업 등 체결

※ 라오스는 중국의 지원(약 2.59억 달러)으로 2015년 11월 21일 첫 위성을 중국 쓰촨성에서 발사한 바 있음

• 라오스 비엔티안-중국 국경(보텐) 간 고속철도 건설사업(총연장 414km)은 약 60억 달러 규모의 사업(중국 70%, 라오스 30% 투자)으로 2016년 12월 착공하였으며, 2021년 12월 개통 완료

- 동 고속철도를 통해 중국 자본 및 인구의 라오스 유입이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라오스 내 영향력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

• 2017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2006년 후진타오 주석 방문 이래 11년 만에 라오스를 국빈방문하면서 17개 MOU를 체결하는 등 양국 간 협력 관계는 더욱 확대

- 비엔티안에서 100년 넘게 사용해 온 라오스 마호솟 종합병원 신축을 위해 중국이 9,700만 달러를 무상원조로 지원하기로 합의

- 비엔티안에서 방비엥을 잇는 고속도로(북부 13번 국도 노선과 평행) 건설 사업에 중국 기업이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중국이 95%의 지분 보유

• 중국은 메콩강 유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2015년 '메콩-란창강 협력 메커니즘(LMC)'을 출범시켜 라오스·중국·캄보디아·미얀마·태국·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정치안보, 지속가능한 경제개발 및 사회문화 교류 등 상호 협력 개발을 위해 특혜 차관 제공 및 메콩강

협력기금 개설 등을 약속하였고, 라오스는 메콩-란창 협력회의 관련 2018~2020년 기간 중국과 함께 공동의장국 수임

- 라오스 루앙프라방에서 개최된 제4차 메콩-란창 협력 외교장관회의에서 '2018~2022 메콩 협력 5개년 행동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상호호혜와 공동번영을 목표로 ▲고품질 생산 능력 증진 ▲메콩강 경제개발 벨트 조성 ▲메콩강 유역국 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체 형성 ▲회원국 내 메콩강 협력사무국 및 협력기구의 역량강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
- 2020년에는 제3차 메콩-란창 정상회의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제1차 및 제2차 정상회의 선언문 및 5개년 행동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발전 방안을 협의 (특히 협력 분야에 공중보건 분야를 추가하기로 한 것이 주요 성과)

• 2018년 12월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제4차 메콩-란창 협력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라오스 방문 계기, 양국 간 포괄적이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2019년을 '라오스-중국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다방면의 상호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합의

- 인적자원개발 사업(라오어-중국어 통역 역량 강화 등) 양해각서 체결 및 라오스-중국 고속철도 사업, 라오스 내 철도기술대학 건립사업 및 동남아와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2019년 4월 분냥 보라칫 국가주석은 제2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차 중국을 국빈방문하여 양국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운명공동체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

- 2019년은 라오스-중국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로, 향후 5년간 정치, 경제, 안보, 상호 문화교류 및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협력 강화 관련 '라오스-중국 운명공동체 구축 행동계획'을 체결
- 동 행동계획은 2019년 4월 30일 베이징에서 서명, 발효되어 양국의 당대회 관계위원회를 주축으로 세부 계획 수립, 홍보 및 시행

- 2022년 11월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은 2021년 3월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으로 취임 이후 중국을 처음 국빈방문하여 20여 건의 협력 양해각서(경제협력, 무역, 투자, 에너지, 농업, 교육, 통신기술, 언론 등) 체결

- 라오스는 중국 일대일로 사업으로 라오스 비엔티안-중국 보텐 연결 고속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중국과 접경 지역인 보텐 경제특구 등 대표적인 사업들을 적극 추진 중인바, 내륙 연계 국가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라오스와 동남아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한 데 따른 것

  - 2023년 4월부터 라오스 비엔티안-중국 쿤밍 간 국제여객열차 운행 개시로 인적교류 및 무역 촉진 등 철도를 이용한 경제회랑을 개발 중이며, 중국은 에너지(수력, 전력망)·광업·제조업·농업 등 제반 분야의 대(對)라오스 직접투자 확대 중

- 2023.5.5.~25.간 라오스군과 중국군은 라오스 비엔티안주 소재 인민군 군사학교에서 최초로 연대급 합동지휘본부를 설치, 지휘본부와 기동부대 간 지휘 연계가 구축된 대테러 및 국경 수비 합동 전술작전 실시

- 2023년 6월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은 라오스와 인접한 중국 윈난성, 광시좡족자치구 및 충칭시를 방문하여 양측 간 교류협력 강화 논의 및 각 지역의 농촌개발 현장과 산업 현장 시찰

- 2023년 7월 살름싸이 꼼마싯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글로벌 공동 발전 행동 포럼 제1차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2021년 9월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GDI) 사업과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라오스는 빈곤감소, 인프라 개발,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녹색발전 및 전염병 대응 분야에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으며, 또한 GDI는 SDGs 달성을 위한 가시적 성과 및 라오스의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 노력 방향과 부합한다고 언급

- 2023년 9월 손싸이 시판돈 총리는 중국 난닝에서 개최된 제20차 중국-아세안 박람회(CAEXPO) 참석 계기 윈난성을 방문하고, 라오스-중국 철도편을 이용하여 라오스 북부 중국 접경 지역 점검

- 동 계기 중국국제방송(CGTN)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와 언론의 라오스에 대한 중국 부채 함정 관련 주장에 대해 라오스는 경제사회 발전 도모를 위해 중국뿐만 아니라 여타 국제금융기구로부터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

• 2023년 10월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은 제3차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여 일대일로 구상이 개발협력 촉진과 역내 및 국제적 차원의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 촉진 역할을 했으며, 중국식 현대화 발전 모델을 높이 평가하고 일대일로 구상을 지지하며 계속 동참할 것이라고 언급

- 양국은 공동의 미래를 위한 라오스-중국 공동체 건설 관련 라오 인민혁명당과 중국공산당 간 2024~2028년 행동계획, 일대일로 협력, 무역투자, 디지털 경제, 우주기술, 미디어, 문화, 관광, 보건, 세관 및 검역 등 13건의 협력협정을 체결

• 2024.7.5.~18.간 라오스군과 중국군은 라오스 인민군 군사학교에서 라오스-중국 합동군사훈련인 '우정의 방패 2024(Friendship Shield-2024)'를 실시, 정찰 및 타격용 드론, 폭발물 처리(EOD) 로봇 등 다양한 무인장비를 동원하여 연합 반격, 공중 공격, 전장 긴급지원 훈련 등 연합 지휘·작전 능력 강화

• 2024년 7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제57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라오스를 공식방문하여 라오스-중국 철도와 경제회랑 개발을 중심으로 한 2024~2028 라오스-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새로운 장을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논의

- 양국은 경제·외교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 메커니즘 구축, 거시경제 문제 해결, 무역·관광 분야 협력 확대 등에 합의

라. 미국

- 라오스와 미국은 1950년 주라오스 공사관 개관 이래 관계가 단절된 적은 없으나 베트남 전쟁 시 라오스 왕정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라오스 국토 폭격으로 인한 불발탄(UXO) 문제와 라오스 공산화 후 몽족의 미국 본토 이주 문제 등으로 인해 불편한 관계를 유지

- 그러나 1992년 대사급 외교관계가 회복되면서 미국 정부가 전시행방불명자와 불발탄 문제, 마약 문제 등을 중심으로 라오스에 대한 원조를 확대하는 등 관계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

- 2004년 12월 미국은 라오스에 정상교역관계(NTR : Normal Trade Relations) 지위를 부여, 라오스 제품의 대(對)미국 수출 관세가 대폭 인하되었으며 2005년 2월에는 양자 통상협정이 발효되어 라오스-미국 간 교역관계를 발전시키는 계기 마련

  - 2016년 2월 라오스와 미국은 무역투자 기본협정 체결

- 2008년 라오스 정부의 주라오스 미국대사관 무관부 설치 허용, 2009년 미국 정부의 공산권 기업에 대한 자본이동 금지 대상에서 라오스 기업 제외 발표 등으로 양국 관계 급격히 진전

  - 특히 2010년 7월에는 라오스 외교부 장관의 최초 미국 방문이 성사되고 9월에는 라오스 국가주석이 인민공화국 설립 후 최초로 유엔총회 및 미-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방문

  - 2010년 3월 양국 간 포괄적 양자 대화의 차관보/차관급 격상에 이어, 6월 미국 난민 담당 차관보가 라오스를 방문하는 등 고위급 인사 교류도 증가

- 2012년 7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라오스 방문은 미국 국무장관으로서는 57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의의와 함께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며, 동 방문 계기에 양국은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미-라오스 상공회의소 개설, 불발탄 문제 지원, 인도차이나 전쟁 당시 실종된 미군 유해 발굴 확대 등에 합의

- 2016년 4월 솜께오 시라봉 라오스 공안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치안 분야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

- 2016년 2월 케리 국무장관이 라오스를 방문하고, 2016년 9월에는 EAS 정상회의 계기 미국의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오바마 대통령이 라오스를 방문, 오바마 대통령과 분냥 보라칫 국가주석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승격하는 데 합의
  - 포괄적 동반자 관계는 정치·외교 관계, 경제·무역, 교육훈련, 보건·환경, 마약 단속, 불발탄 제거, 인권, 문화, 체육, 관광의 상호협력을 기초로 하며, 당시 양국 지도자들은 상호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
  - 오바마 대통령은 라오스에 불발탄(UXO) 제거 지원 자금으로 매년 3,000만 달러씩 3년간 총 9,000만 달러, 차기 5년간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2,700만 달러, 3년간 모자보건을 위한 식품위생 프로그램에 60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

-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대(對)라오스 외교정책 관련, 미국과 라오스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는 양국 간 협력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도약의 발판으로, 기존 양국 간 협력 관계는 그대로 유지·지속될 것이라고 했으나, 정권 교체 이후 불발탄(UXO) 제거 관련 9,000만 달러 지원 약속은 불이행

- 2017년 9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 상무장관으로서는 최초로 라오스를 공식방문하여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
  - 보리캄싸이주(50MW)와 앗따쁘주(250MW)에 총 300MW 용량(4억 달러 규모) 태양열발전 사업 개발협정을 체결, 동 사업은 대(對)라오스 미국 투자 사업 중 최대 규모

- 2022년 5월 판캄 비파반 총리는 제2차 미-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으며, 6월에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라오스를

방문, 불발탄(UXO) 제거를 위한 4,500만 달러 지원 및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약속

- 2024년 7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제57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라오스를 방문하여 보건, 교육, 무역투자, 마약 예방 및 불발탄 제거 협력 확대 재확인

마. 일본

-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말 라오스를 일시 점령한 적이 있으며, 1951년 8월 라오스와 평화조약을 체결한 이래 1955년부터 상주공관을 설치하여 운영 중

- 일본은 라오스에 제공되는 전체 ODA의 약 25%를 점유하는 원조 대국으로서, 남하하는 중국의 영향력 견제 및 동남아 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 유지 및 확대를 위해 막대한 금액의 개발원조를 제공
  - 일본의 대(對)라오스 공적원조 금액은 연간 약 9천만~1억 달러에 달해 라오스 공적원조국 1위를 차지, 주요 지원 분야는 인프라 개발, 인적자원 개발, 보건 및 농업 분야 등이며, 특히 일본은 비엔티안-하노이 고속도로 건설의 타당성 조사 사업과 왓따이 국제공항 확장 사업(양허성 차관 6,100만 달러, 10년 거치 30년 상환) 등 지역 연계성 사업을 추진
  - 일본은 1965년부터 2024년 3월까지 1,065명의 봉사단원을 라오스에 파견, 다양한 분야의 라오스 관계기관 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 중

- 2015년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라오스-일본 양국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으며, 2016년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의 라오스 최초 방문, 통룬 시술릿 총리의 2016년 5월 G7 확대 정상회의 계기 일본 방문 및 2017~2019년간 매년 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 참석차 일본 방문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 중

- 특히 양자 관계와 함께 '일본-아세안 다이얼로그' 등 아세안 맥락의 협력 관계 발전 이외에도 새로이 '일본-메콩강 국가 간 협력체'를 출범시키는 등 다각적인 관계 발전을 모색
  - 2008년 제1회 일본-메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2009년 11월 제1차 일본-메콩 지역 정상회의 개최 이후, 관련 회의 지속 개최
  - 2016년 5월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 라오스 방문 시 일본-메콩 연계성 이니셔티브 등 승인

- 2018년 4월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은 외무상 취임 후 라오스를 첫 방문, 라오스의 거시경제 관리 사업과 비엔티안-하노이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사업, 일본-아세안 기금 진흥 사업 등에 대해 논의

- 2019년 5월 통룬 시술릿 총리는 동경에서 개최된 제25차 아시아의 미래 국제회의(닛케이 포럼)에 4년 연속 참석, 양국 간 인적자원개발 협력사업과 라오스-일본 간 항공 관련 개정 협약을 체결하고, 앗따쁘주 댐 사고 수해 복구 및 재정 안정화 관련 전문가 파견 논의 및 라오스 사업가 대상 일본 방문 상용 목적의 복수사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
  - 2019년은 일본-메콩 교류의 해로, 일본과 메콩 및 ACMECS 등의 협력을 지속

- 2020년은 라오스-일본 외교관계 수립 65주년으로, 이를 기념하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이 취임 후 처음으로 라오스를 방문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레지던스 트랙 및 비즈니스 트랙)을 포함, 라오스 연결성 강화 협력(비엔티안-하노이 고속도로), 투자협력, 전력망 구축 관련 협력 등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

- 2022년 4월 판캄 비파반 총리가 '아시아·태평양 물 정상회의' 참석차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 2021년 4월 양국 총리 간 합의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진전을 위한 행동계획'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발전 방안 논의

- 2023년 5월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은 제28차 아시아의 미래 포럼 참석차 일본을 방문, 인재 육성과 재정 안정화 지원 협력 및 2025년 라오스-일본 수교 70주년 계기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논의

- 2023년 10월 가미가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라오스를 공식방문, ▲무역·투자·관광 등 경제협력 강화 ▲인력 송출 확대 ▲연결성 강화 ▲라오스 재정 안정화 등의 협력을 논의

- 2023년 11월 살름싸이 꼼마싯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일본을 공식방문하여 2023년 12월 일본-아세안 우호협력 50주년, 2024년 라오스의 아세안 의장국 수임 및 라오스 방문의 해, 2025년 라오스-일본 수교 70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계기에 전략적이고 긴밀한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일본 정부의 무상원조 사업인 짜오아누봉 경기장(Chao Anouvong Stadium) 재건 사업(총 예산 약 2,749만 달러)을 위한 교환각서 서명(1950년에 건립된 비엔티안시 중심 소재 경기장의 노후화된 시설 재건 및 장애인 시설 등 부대 시설 건축)

- 2024년 7월 가미가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은 제57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라오스를 공식방문하여 2025년 라오스-일본 수교 70주년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계기 정치·경제·문화 협력 활동 공동 추진 합의

- 2024년 8월 손싸이 시판돈 라오스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 2024년 라오스 방문의 해 계기 양국 교류 활성화 및 2024년 10월 라오스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제2차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지지 의사 표명
  - 제1차 AZEC 정상회의는 2023년 12월 아세안-일본 특별정상회의 계기 일본 도쿄에서 개최

바. 러시아

- 라오스는 러시아와 1960년 10월 7일 외교관계 수립 이래 구소련과의 관계를 베트남과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특별우호 관계'로 규정하고 아태 지역 내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신뢰 관계 구축 및 정치·경제·군사 등 각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현 라오스 정·관계 지도부에는 구소련 유학생들이 일단을 형성할 정도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
  -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대외원조 축소 방침에 따라 라오스에 대한 원조도 유명무실화되었으나, 당·정 간 교류를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양국 협력 관계 발전에 주력하는 양상
  - 제11차 라오인민혁명당 정치국원 13명 중 9명이 러시아에서 수학 경험

- 2016년 5월 통룬 시술릿 총리가 러시아-아세안 회의 참석 계기에 러시아를 방문하고, 같은 해 찬사몬 짠야랏 국방부 장관이 러시아를 공식방문하였으며, 2018년 1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라오스를 공식방문하여 양국 간 국방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2017년 9월 통룬 시술릿 총리는 러시아를 공식방문하고 범죄인 인도협정, 항공수송 관련 협정, 광산 및 에너지 관련 3개 협력협정, 군사기술 협력협정,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대응 국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협정에 서명

- 2017년 10월 라오스경제연구소(NIER)와 러시아 Higher School of Privatisation and Entrepreneurship(HSPE)는 5개년 협력협정을 체결하여 HSPE측은 러시아 및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재정 및 농업 분야 등 경제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NIER측은 HSPE에 역내 비즈니스 협력을 지원하기로 함

- 2018년부터 러시아군의 국제지뢰탐지센터(International Mine Action Center)가 라오스 보리캄싸이주, 씨엥쿠앙주, 캄무안주 등지에서 1964~1973년간 투하된 불발탄(UXO) 제거를 위한 인도적 지원 활동 중

- 2021년 7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라오스를 실무 방문하여 경제, 무역, 투자, 에너지, 교육, 관광, 국방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증진 방안 논의

- 2023년 5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통합러시아당 의장 겸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라오스를 공식방문하여 라오인민혁명당과 통합러시아당 간 협력 공동선언 및 교육 분야(러시아어 연구 진흥) 협력 MOU, 2023~2025 라오인민혁명당과 통합러시아당 간 협력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

- 2023년 9월 빠니 야토투 라오스 국가부주석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된 제8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계기 푸틴 대통령을 예방하고, 라오스 의료전문가 교육 협력 및 국방 분야 교류 논의

- 2023년 10월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은 중국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정상포럼 참석 계기, 푸틴 대통령과 만나 양국의 높은 수준의 정치적 유대 관계 평가 및 실질적인 경제협력 발전 방안 논의

- 2024년 5월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은 라오스-러시아 우호조약 체결 30주년 및 러시아의 전승절 79주년 기념식 참석 계기 러시아를 방문하여 정치·안보·교육 분야 협력 평가 및 경제협력, 무역투자, 과학기술, 관광,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논의
  - 푸틴 대통령은 통룬 주석의 전승절 참석과 러시아 승리의 상징인 'T-34 전차'를 러시아에 재인계해 준 라오스측에 사의 표명(T-34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소련제 전차로, 1987년 러시아가 라오스에 군사협력 차원에서 지원 후, 2019년 러시아측의 요청으로 동 전차 30대를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 행사용으로 재인계)

- 2024년 6월 살름싸이 꼼마싯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BRICS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러시아를 방문하여 정치안보 및 국방, 사이버안보, 에너지, 광산, 철도 물류, 문화관광, 교육 분야 등 협력 강화 논의

- 2024년 7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제57차 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라오스를 방문하여 정보보안 및 통신기술 협력, 2024~2026 양국 외교부 간 협력, 라오스 중등학교 대상 러시아어 교육·연구 및 문화·교육 분야 유대 증진 협력 등의 양해각서 체결

3. 국제기구 가입 현황

• 가입한 국제기구(총 40개, 2024년 7월 기준)

아시아개발은행(ADB)	글로벌녹생성장기구(GGGI)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아세안지역포럼(ARF)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콜롬보 플랜(CP)
77그룹(G-77)	유엔식량농업기구(FA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계측위원회(ICRM)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개발협회(IDA)
국제적십자사연맹(IFRCS)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국제표준화기구(ISO,subscriber)	국제의원연맹(IPU)
다자간투자보증기구(MIGA)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프랑스어문화권기구(OIF)	비동맹운동(NAM)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연합(UN)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만국우편연합(UPU)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기상기구(WMO)
세계무역기구(WTO)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4. 수교국 및 재외공관·외국공관 현황

가. 수교국 현황(총 150개국, 2024년 9월 기준)

지 역	계	수 교 국
아시아·중동	41	한국, 북한,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일본, 쿠웨이트,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시리아, 동티모르, 태국, 튀르키예, 아랍 에미리트,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바레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예멘, 몰디브
유럽·독립국가연합	47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영국,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알바니아, 안도라,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EU, 조지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마케도니아,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몰타, 모나코, 아르메니아
대양주	5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피지, 바누아투
미주	23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칠레, 쿠바, 에콰도르, 자메이카, 멕시코, 페루, 미국,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그레나다, 니카라과, 파나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세인트키츠네비스, 도미니카연방, 산마리노, 과테말라, 우루과이
아프리카	34	알제리, 앙골라, 베냉, 코트디부아르, 이집트, 기니, 케냐, 리비아, 마다가스카르, 말리, 모로코, 세이셸,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사하라 아랍민주공화국, 소말리아, 튀니지, 잠비아, 짐바브웨, 모리타니,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콩고, 부룬디, 가나, 우간다,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나. 재외공관(2024년 7월 기준)

- 총 28개국에 41개 상주공관 설치
  - 28개 대사관, 3개 대표부, 9개 총영사관, 2개 출장소
    ※ 제네바에 스위스 대사관 겸 대표부 설치(1개 공관으로 간주)

지 역	계	소 재 지
아시아·태평양 (28)	16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북한,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한국, 호주
	1	아세안(대)
	11	광저우(총), 다낭(총), 난닝(총), 상하이(총), 콘캔(총), 쿤밍(총), 호치민(총), 홍콩(총), 스퉁트렝(총), 징홍출장소, 창사출장소
유럽 (9)	9	독일, 러시아,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제네바(대)),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헝가리
미주 (3)	2	쿠바, 미국
	1	뉴욕(대)
아프리카·중동(1)	1	쿠웨이트

다. 외국 공관 현황(2024년 7월 기준)

- 총 25개국 32개 공관 상주

대사관(25) 대표부(1)	베트남, 중국, 말레이시아, 러시아, 필리핀, 프랑스, 미얀마, 한국, 쿠바, 인도, 캄보디아, 일본, 독일,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북한, 호주, 미국, 몽골, 쿠웨이트, 영국, 동티모르, 튀르키예, EU(대표부)	
총영사관 (6)	사바나켓	태국, 베트남
	팍세	베트남, 캄보디아
	루앙프라방	베트남, 중국

IV

경 제

1. 경제 개관
2. 주요 경제 지표
3. 경제 동향
4. 경제 정책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 경제 개관

- 라오스는 현재 세계 최저개발국(LDC)에 해당하며, 2026년까지 최저개발국 졸업 및 2030년까지 중위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제9차 국가경제사회개발계획(2021~2025) 및 비전 2030 추진 중

- 라오스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8.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14년부터 2018년까지도 6~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타격을 받아 2019년 4.7%, 2020년에는 -0.4%의 성장률을 기록함. 2021년, 2022년에는 일부 회복하여 각각 2.1%, 2.3%를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3.7% 달성(라오스 정부는 2023년 경제성장률을 4.2%로 발표)

- 경제성장은 주로 라오스의 천연자원을 이용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수력발전 및 광업)와 해외 원조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분야별 역량 강화, 투명성 증대,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개혁 조치 및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이 필요

- 라오스는 전통적으로 중국·태국·베트남과의 교역 의존도가 높은바, 2023년 전체 교역의 약 79.8%(중국 37.8%, 태국 30.2%, 베트남 11.8%)가 이들 3국에 집중

- 라오스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중국(134억 달러), 태국(47억 달러), 베트남(43억 달러)에 집중(2021년 라오스 투자승인 금액 누계 기준, 라오스 기획투자부)
  - 분야별로 전력 분야가 95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의 35%를 차지하며, 이외 광산(68억 달러), 서비스(40억 달러), 농업(28억 달러), 제조 및 가내수공업(15억 달러) 분야에 외국인 투자 집중

2. 주요 경제 지표

가. 경제 지표

경제지표 (단위)	2019	2020	2021	2022	2023
GDP (백만 달러)	18,770	18,510	18,530	15,120	15,200
1인당 GDP (달러)	2,600	2,530	2,500	2,020	2,000
GDP성장률 (%)	4.7	△0.4	2.1	2.3	3.7
물가상승률 (%)	3.3	5.1	3.8	23	31.2
총교역액 (억 달러)	130.6	126.0	152.9	181.2	191.9
수출 (억 달러)	61.5	66.0	83.5	99.0	99.3
수입 (억 달러)	69.1	60.0	69.4	82.2	92.6
GDP 대비 정부 부채 (PPG, %)	68	72	88	112	108
외환보유고 (백만 달러)	997.25	1,821.16	1737.23	1,480.31	1,781.96
환율 (KIP/달러)	8,710	9,082	9,823	14,478	18,777

출처 : IMF, World Bank, Bank of Lao, Global Trade Atlas 등

3. 경제 동향

가. 최근 경제 현황

- 라오인민혁명당(LPRP)은 시장경제 도입, 대외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추진
- 2018년 당대회에서 내륙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라오스는 '타국에 갇힌 국가(Land-Locked Country)'가 아닌 '타국을 연결하는 국가(Land-Linked Country)'임을 천명하고, 투자법·기업법·법인세법 등을 개정하여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
- 이와 더불어 주요 국가의 경제협력도 적극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는 일대일로 정책과 함께 대규모 투자 사업 진행 중

국 가	경제협력 내용
중국	• 2016년 9월 철도·도로·전력·관광 전반에 걸쳐 126개 협력사업 MOU 체결 *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주의 우방국과 전방위적 협력 강화 도모 • 라오스-중국 고속철도 사업(414km)에 라오스 정부는 30-70 합작사업으로 토지 제공, 2021년 12월 완공
베트남	• 인도차이나 전쟁을 함께 치른 형제의 국가로 정치·경제·문화 교류 활발 • 2019년 2월 베트남 국가주석이 라오스를 방문, 9개 분야 협력사업 MOU 체결 * 대외 차관, 전력/광산 분야, 라오스-베트남 철도/항만, 과학기술, 관광 등 • 2024년 7월 베트남 국가주석이 라오스를 방문, 7개 분야 협력사업 MOU 체결 * 항공운송 분야(항공정비단지 및 아카데미), 수력발전 및 광물 탐사 및 제조업 등
다자 협력	• 아세안과 상호호혜와 공동번영을 위한 다자간 협력 확대 • 세계은행 등 40개 국제기구 진출, 인프라 구축에 연간 4억 달러 지원 • 메콩강위원회(MRC) : 티베트-남중국해까지 전력·환경·운송 협력 강화 • 메콩강 유역 국가 경제협력 프로그램 관련 국제 공조 강화(ADB, 2018년) * 143개 인프라 건설 사업(657억 달러), 84개 기술지원 사업(3억 달러) 추진

- 라오스 통계청에 따르면 24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4%(25~54세 39.4%, 55~64세 6%, 65세 이상 5%)를 차지하는 젊은 국가(2022년 기준)

-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최근 라오스-중국 고속철도 개통 및 라오스-베트남 철도 간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역내 교통·물류 거점으로의 부상을 적극 추진 중

- 라오스는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인근국으로의 전력 수출량이 상당하며, 루앙프라방 및 방비엥을 중심의 관광업 비중도 높은 데 반해, 제조업의 경우 기반이 미약하여 공산품 및 가공식품 등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2022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 미국의 빅스텝 금리 인상으로 인한 달러화 강세로 2021년 3.8% 수준이었던 물가 상승률이 2022년 23%, 2023년에는 31.2%로 연속 최고치 갱신한 뒤 2024년 7월 25.39%로 다소 감소

- 라오스 중앙은행은 만성적 무역적자, 외환보유고 감소 등의 이유로 관리변동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 급등 등 대내외 경제 상황 악화 이유로 2021년 달러당 9,823킵이던 환율이 2022년 14,478킵, 2023년 18,777킵까지 상승
  - 이에 따라 라오스 중앙은행은 외환관리법 개정, 킵화 사용 강화 등 환율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 상승은 지속 심화되어 2024년 9월에는 22,023킵까지 상승

- 2023년 GDP 규모가 152억 달러인 라오스는 경제 규모에 비해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8%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외환보유고는 2023년 17.8억 달러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2~2025년 라오스의 연평균 부채 상환액 규모는 약 13억 달러로 라오스 정부의 부채 상환이 경제 문제로 부각

나. 분야별 현황

1) 경제성장률

- 라오스는 광물 및 수력발전 생산량의 증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추진, 관광산업의 호조 등으로 2005년 이후 약 7% 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코로나19로 경제성장이 둔화되어 2020년 -0.4%, 2021년 2.1% 기록

- 이후 코로나19가 완화되고 2022년 5월 라오스 국경 전면 개방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며 2022년 2.3%, 2023년 3.7%를 기록하는 등 점차 회복세

- 산업별 GDP 기여도는 2022년의 경우 1차산업 20.1%, 2차산업 38.3%, 3차산업(서비스업) 41.6%이며, 인프라, 광물, 농업 분야가 GDP 회복에 기여

2) 물가상승률 및 환율

- 라오스 물가는 코로나19 이후 지속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생필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적 특성상 타국 통화 대비 평가절하에 기인한 물가상승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라오스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

- 2021년 라오스 연간 물가상승률은 3.8%를 기록하였으나, 2022년 들어 글로벌 유가 급등 및 킵화 가치 급락의 영향으로 23%로 치솟았으며, 이러한 추세가 2023년에도 지속되어 2023년에는 31.2% 기록
  - 급격한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라오스 내 임금 인상은 이루어지지 않은바, 실질소득이 줄어든 많은 라오스인들은 라오스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 태국 등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라오스 내 인력난 심화

• 환율은 만성적 무역적자와 대외부채 증가, 외환보유고 감소로 인해 2019년부터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달러당 18,000킵 초과, 2024년에는 20,000킵을 초과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환율 (LAK/USD)	8,710	9,082	9,823	14,478	18,777

출처 : Bank of Lao

3) 국제수지

• 라오스의 교역 규모는 코로나19가 심화되었던 2019년 및 2020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부터 무역수지 흑자 기록 중 (다만, 통계 기준, 통계 기관에 따라서 적자로 표시되기도 함)

최근 5년간 라오스 무역 거래 추이

(단위 : 억 달러)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 출	61.5	66.0	83.5	99.0	99.3
수 입	69.1	60.0	69.4	82.2	92.6
무역수지	△7.6	6.0	14.1	16.8	6.7
교 역	130.6	126.0	152.9	181.2	191.9

출처 : Global Trade Atlas

- 다만 2023년 무역수지는 글로벌 유가 급등 및 라오스 킵화 약세, 중국에서의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흑자폭 감소
  - 주요 수출품은 전력(21.5%), 광물(24.8%)에 편중되어 있으며, 인접국가의 파이낸싱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수출 대금이 라오스로 유입되는 외화 비중이 낮은 편(약 40%)
  - 주요 수입품은 유류/전기·전자제품 등이며, 특히 유류의 경우 자동차 구매량에 비해 석유가 생산되지 않아 유류 수입(10.8%)이 많은 편
  - 주요 교역 대상국은 중국, 태국, 베트남 순이며, 3개국의 교역액은 한때 전체의 90% 이상이었으나,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2023년 79.8%)

    ※ 라오스의 주요 교역국(2023년 Global Trade Atlas 통계 기준)
    - 10대 수출국 : 중국, 태국, 베트남, 호주,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인도, 스위스
    - 10대 수입국 : 태국, 중국, 베트남, 일본, 한국, 싱가포르, 독일, 미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약 479만 명의 관광객이 라오스를 방문하여 9.34억 달러의 관광 수입을 획득한 바 있으며, 라오스 정부는 2024년 약 460만 명의 관광객 및 7억 1,200만 달러의 관광 수익을 목표로 설정

4) 대외부채

- 2023년 라오스의 공공지불보증부채(PPG)는 138억 달러로, 이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76%이며 라오스-중국 간 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사업비 약 60억 달러 중 35억 달러가 부채이며, 전체 지분 구조는 중국이 70%, 라오스가 30%)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우려 증가

- 라오스의 공공지불보증부채는 2020년 133억 달러(GDP의 72%)에서 2021년 145억 달러(GDP의 88%), 2022년 140억 달러(GDP의 112%)를 기록해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증가세를 보이다 2023년 신규 부채 발생을 제한하고 자산 매각 등을 활용하는 노력 등으로 138억 달러(GDP 대비 108%)로 감소

• 무디스는 2022년 6월 14일 급격한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유동성 악화, 대내외 부채 부담 외에도 만성적인 재정적자, 정부의 해결 역량 및 옵션 부족을 이유로 라오스 신용등급을 기존 Caa2에서 Ca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 후 현재(2024년 상반기)까지 하향 단계 유지

5) 투 자

• 외국인 투자 상위 5개국(1989~2021년 누계, 투자승인 금액 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

순 위	국 명	건 수	금 액	비 율
1	중 국	911	13,423	48.7
2	태 국	762	4,728	17.2
3	베트남	426	4,324	15.7
4	말레이시아	101	767	2.8
5	한 국	310	759	2.8
전체 외국인 투자		4,809	27,556	-

출처 : 라오스 기획투자부 (2024.8월 기준)

• 분야별 외국인 투자 금액(1989~2021년 누계, 투자승인 금액 기준)

(단위 : 건, 백만 달러, %)

순위	분 야	금 액	비 율
1	전력발전	9,509	34.5
2	광산개발	6,797	24.7
3	서비스	4,022	14.6
4	농 업	2,796	10.1
5	제조 및 가내수공업	1,452	5.3
6	호텔/요식업	670	2.4
7	건 설	633	2.3
8	은 행	478	1.7
9	통 신	444	1.6
10	목 재	299	1.1
11	무 역	206	0.7
12	봉 제	86	0.3
13	보 건	73	0.2
14	컨설팅	69	0.2
15	교 육	23	0.1
전체 외국인 투자		27,556	100.0

출처 : 라오스 기획투자부 (2024.8월 기준)

6) ODA 현황

• 라오스의 ODA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순 ODA	588	621	529	575	547
GNI 비중	3.3	3.5	2.9	3.2	-

출처 : OECD DAC (2024.8월 추출 자료)

4. 경제 정책

가. 경제 운용 기본 목표

- 2026년까지 세계 최저개발국 지위 탈피, 2030년 중진국 진입
- 중위소득국가 진입을 위한 녹색성장 실현
-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세부 목표 달성
  - 교육, 성별, 경제적 평등
  - 헬스케어 및 인구 발전
  - 탈탄소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산업 발전
  - 지속가능한 식량, 토지, 수자원 관리
  - 도시 및 지역공동체 지속가능성 유지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혁명

나. 제9차 경제사회개발계획(2021~2025년)

- 거시경제 분야
  - 경제성장률 연 최소 4% 달성으로 2025년 1인당 GDP 2,880달러 진입
  - 제조업 분야 수출 규모 50% 이상 증대
  - 연평균 재정수입 GDP의 17% 이상, 연평균 재정적자 GDP의 1% 미만
- 사회환경 분야
  - 2025년까지 빈곤율 13.9% 미만, 빈곤가정 비율 9.5% 미만 달성
  - 15~24세 문자해독률 91% 달성
  - 영유아 사망률 20/1,000, 산모 사망률 110/100,000 미만으로 감소
  - 5세 미만 아동 저체중 15% 미만, 발육부진 27% 미만
  - 상수도 보급률 95%, 사회보장제 및 건강보험 96% 등

다. 2025 전략(2016~2025년 10개년 경제사회개발 전략)

- 경제성장률 연평균 최소 7.5% 이상 달성
- 1인당 GDP 2015년의 2배 이상 달성, 빈곤율 5% 이내 달성
- 법 제도화 정착 노력, 법 제도화된 국가로의 점진적 진입

라. 2030 비전(2016~2030년 15개년 비전)

- 2030년 중진국 진입
- 2030년 1인당 GDP 2015년의 4배 이상 달성
- 2030년 모든 분야에서 법 제도 완성, 제도화된 국가로 진입

V

사회·문화·교육

1. 보 건
2. 교 육
3. 종 교
4. 언 론
5. 관 광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 보건

가. 일반 현황

- 고온다습한 전형적인 열대성 기후로 각종 풍토병이나 전염병 수시 발생
  - 대표적인 질병 : 말라리아, 뎅기열, 각종 기생충 질환, 요오드 결핍증, 탈라세미아(지중해빈혈) 등
  - 최근 전국적으로 뎅기열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보건부 산하의 감염병관리국, 국가중앙실험실 등을 중심으로 예방 활동 전개

- 일반 국민의 위생 상태나 생활수준을 대표하는 지표인 영아 사망률 및 5세 이하 아동 사망률은 최근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2022 WHO 세계 보건 통계)
  - 1세 이하 영아 사망률 : 22명/1,000명
    ※ 미얀마(22명/1,000명), 캄보디아(13명/1,000명),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18명/1,000명)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 44명/1,000명
    ※ 미얀마(44명/1,000명), 캄보디아(26명/1,000명),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30.4명/1,000명)
  - 라오스 보건당국 및 우리나라 포함 국제원조기관의 노력 결과, 영아 사망률 및 5세 이하 사망률은 최근 10년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

- 기초 보건 지수인 '안전한 식수 접근성(Access to safe drinking water)'은 약 17.68%에 불과(2020년 기준)
  - 2010년 13.74%, 2015년 15.88%, 2020년 17.68%

- '개선된 위생시설 접근성(Access to improved sanitation)'의 경우, 현대식 화장실, 상하수도 등 기초 위생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라오스를 비롯한 아세안 국가에서 지속 개선 중

- 2010년 44.08%, 2015년 54.06%, 2017년 57.93%에서 2020년 61.38%로 지속 개선

- 2023년 기준 라오스의 글로벌 의료서비스 순위*(Best Healthcare in the World 2023, WHO)는 의료시스템 42.2점으로 121위, 건강점수 64.6점으로 115위를 차지

  * 글로벌 평균은 의료시스템 54점, 건강점수 69점, 한국은 의료시스템 75.1점(22위), 건강점수 84.1점(3위)

- 2023년 라오스 내 의사는 3,457명으로 인구 1천 명당 0.49명, 간호사는 5,576명으로 인구 1천 명당 0.86명, 조산사는 1,827명으로 인구 1천 명당 0.27명 수준으로 의료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통계조차 제대로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열악한 실정인 것으로 추정

  ※ OECD 평균 의사 및 간호사 수 : 1천 명당 임상의사 3.7명(2022년 기준)

  - 비엔티안 내 국립보건과학대학이 의사 등 주요 고급 의료인력을 양성하며, 루앙프라방, 사바나켓, 참파삭 등 3개 도의 지역거점 보건대학에서 보조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력 양성

  - 라오스 보건부는 정부 운영 보건시설의 서비스 통계를 중심으로 국가 보건 통계 시스템을 수집, 관리 중이나 보고 과정에서 누락 및 오류가 많아 여전히 제도적 개선 필요

나. 의료 상황

- 라오스 정부는 보건부, 국립대학 의학부, 의료 관계 각종 전문학교, 병원,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공중위생 분야 기반 확충, 예방접종 확대, 보건서비스 제공 네트워크 구축 등을 국가적 사업으로 시행 중

- 비엔티안 시내에 마호솟, 세타티랏, 미타팝 등 국립종합병원과 까셈랏 사립종합병원이 있고 각 도에 종합병원이 있으나 의료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외국인 및 라오스 중산층의 경우 간단한 응급처치와 혈액

검사, X-Ray 촬영 이외에는 인근 태국 우돈타니(Udonthani) 소재 병원을 이용하는 실정

- 1차 의료는 보건소 및 군립병원, 2차 의료는 도립병원, 3차 의료는 5개 중앙 수련병원(마호솟, 세타티랏, 미타팝, 모자병원, 아동병원)과 2개 특수병원(군인, 경찰)으로 구성되어 지원
- 2020년 기준 1,050개의 민간 병원(개인 클리닉)이 도심 지역에 존재하며 부유층의 경우 가격은 비싸지만 친절하고 서비스 질이 우수하며,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개인 클리닉 및 인근 태국 병원을 선호

• 약국에는 라오스 자체 생산 약품 외에 프랑스·태국·중국 등에서 수입된 약품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감기약·진통제·소화제·항생제·알러지약 등은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

- 수도 이외 지역은 의료시설 및 약국이 매우 열악해 비상약품·모기약 등 상비 필요

• 라오스 정부의 약품과 의료기기 수급 및 보급은 중앙보건부 의료물자공급센터의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규로 들어오는 약품과 의료기기는 식약국의 승인 필요

- 실제로 라오스 보건부의 약품 수급은 주 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등록되지 않은 약의 보급, 질 관리의 문제 등이 발생
- 의료기기의 경우 원조로 수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에 안 맞는 의료기기 공급, 소모품 수급 계획 부재, 사후 관리 부재 등의 문제로 사용률은 높지 않은 상황
- 보건부에 따르면 의료기기 기술자는 2022년 현재 전국 155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다수가 수도에 거주해 지방에서 기기 고장 시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관련 학사 학위 이상 소지하고 있는 인원은 24명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의료기기 기술자 역량강화, 관리 운영 체계 수립, 웹 기반 관리 소프트웨어 구축 등 의료기기 관리 운영 체계 강화를 위해 지원 중

- KOICA는 비엔티안에 2011년 11월 최초로 아동병원을 설립함. 동 병원은 라오스 5대 중앙병원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라오스 통합모자보건 및 소아과 의료인력 교육사업(2013~2018년, 950만 달러)' 수행
  - KOICA는 세계적인 수준의 한국 보건의료시스템을 활용하여 대(對) 라오스 지원의 약 24%를 보건의료 분야에 집중 지원 중
  - 아동병원은 운영 현황이 매우 우수하여 하루에 300명이 넘는 외래 환자가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외에도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2010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 중
  - 모자보건, 감염병 관리 시스템 역량강화, 건강보험 정책 관리 강화, 병원 운영 컨설팅, 의료기기 관리 운영 체계 강화사업, 의료인력 역량 강화 초청연수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
  - 2010년 이래 라오스 북동부 2개 도(씨엥쿠앙 및 후아판)에서 라오스 모자보건 국가전략 이행을 지속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모자보건 서비스 질 제고를 중심으로 한 사업을 확장하여 실시
  - 총 300명이 넘는 의료인력이 국내 초청연수(이종욱 펠로우십 과정)를 수료, 향후 국립의과대학병원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병원 자립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수사업을 기획하여 확대 추진할 예정
  - 한국 정부의 감염병 관리 및 검역 기술 전수와 더불어 감염병 분야 법률 제정 및 관리 역량 강화, 코로나19 및 신종 감염병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구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
  - 라오스 최초의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 기획 단계부터 연계하여 병원 운영 컨설팅 지원 중

다. 보건 재정

- 라오스 정부는 2025년까지 보건 분야 지출을 GDP 대비 3~4%로 높이고, 개인지출 부담 비율 30% 미만, 총인구의 95%까지 의료보험 제도 수혜를 골자로 하는 의료보장 목표 수립

  ※ 2021년 기준 1인당 연간 보건 지출 84달러, GDP 대비 3%

- 2021년 라오스의 의료비 지출은 6.2억 달러이며 총 의료비 중 공공 지출 비율은 57.95%로 의료 비용의 약 42%를 환자 개인이 부담. 라오스는 2025년까지 보편적 건강보장제도(Universal Health Coverage)를 달성하기 위해 2016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 2019년 기존 제도를 국민건강보험제도에 편입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

  - 라오스 보건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 10.5%에서 2023년 94.5%로 상승

- 라오스 정부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 및 제도 확립을 위해 노력 중이며, 건강보험 수가 및 지불 제도 개선, 건강보험 관리 정보시스템 마련 등 정책 제언과 기술 자문을 위한 전문가 필요

  - WHO(세계보건기구), ILO(국제노동기구), KOFIH(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 관련 지원 실시 중

라. 에이즈 감염 실태

- 라오스에서 최초로 에이즈 환자가 보고된 것은 1992년이며, 라오스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현재 HIV/AID 유병률은 15~49세 인구의 0.39%로 집계되었고, UNAIDS 역학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HIV 감염자는 17,927명으로 추정

  - 신규 감염자 수는 2015년 900명, 2019년 780명 수준이었으나 최근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22년에는 1,748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감염자 중 남성이 64%이고 평균 연령대는 20~39세

- 라오스의 HIV/AIDS는 보건부와 HIV/AIDS 및 성매개감염병(STI) 센터(CHAS)에서 예방 및 감시 활동을 추진 중이며, HIV/AIDS 협회는 103 군인병원, 마호솟 병원 및 세타티랏 병원과 협력하여 환자 관리 및 치료

마. 마약 문제

- 지리적으로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에 둘러싸인 특성상 마약 운반에 있어 전통적인 경로로 이용
  - 특히 미얀마 군부 장악에 기인한 치안 공백으로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내 마약 생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라오스가 주요 밀매 통로로 이용
  - 마약류 생산 및 가공, 운반, 매매 방식 또한 나날이 다양해지고 은밀해지며, 최근에는 특수 개조 차량에 마약을 은닉하거나 미성년자나 임신부를 이용한 마약 운반 등 수법 다양화
  - 기존 라오스 북부 지역인 퐁살리, 루앙남타에서 생산되던 주요 마약류인 아편의 경우 라오스 정부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합동단속 강화로 70% 이상의 재배지가 파괴되어 감소 추세

- 최근 5년간 라오스에서 적발된 마약류 현황에 따르면 메타암페타민(야바), 헤로인, 케타민이 다수를 차지
  - 특히 야바와 저가의 ATS(Amphetamine-Type Stimulants)는 술집, 클럽 등지에서 쉽게 거래가 이루어지며, 청소년층의 ATS 중독자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라오스 정부는 2021~2025년 정부 2대 국정과제로 경제 회생과 함께 마약 근절을 목표로 제시
  - 마약 근절을 위한 6개 핵심 과제는 ▲당과 정부의 지침 및 정책을 전파하고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 의식 고취 ▲마약 관련 규정 및 법률 제·개정 ▲조직 구조 개선 및 법 집행기관 역량 고도화 ▲이행 과제 관리 및 감독 효율성 향상 ▲마약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향상 ▲국제적 협력 증진

- 동남아 국가 중 최저개발국으로 재정이 취약하고, 내수 경기 장기 침체 등으로 마약 근절을 위한 예산 투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 마약 검사 장비가 라오스 전역에 3대에 불과해 마약 탐지 및 분석 장비 부족으로 마약 사건 발생 시 마약 여부, 성분 등 알아내는 데 수개월 소요

• 라오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시행한 '마약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국가 프로그램'을 통해 10,843건의 마약 사건을 적발하고 15,900명(외국인 324명)의 마약사범을 체포

- 특히 2024년 1~5월 발생한 마약 관련 사건 1만 건 중 1,680건을 해결하였으며, 총 2,616명(외국인 96명)의 마약사범 체포

• 최근에는 수도 비엔티안과 유명 관광지인 방비엥 일대의 술집·클럽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환각 성분이 들어 있는 Happy Balloon(일명 '마약 풍선')을 판매

- 해피벌룬은 '웃음가스'라고도 불리는 아산화질소가 들어 있는 풍선으로, 흡입 시 약 20초간 환각 상태가 지속되며, 과다 흡입 시 뇌손상 및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례 있음
- 영사콜센터 '맞춤형 로밍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우리 여행객들에게 마약류 소지·운반·유통에 경각심 제고

※ 라오스 형법 제314조~제320조는 마약류별 종류, 무게 등으로 구분하여 처벌 규정을 세분화

2. 교육

가. 일반 현황

- 학제 : 초등교육 5년, 중등교육 7년(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해당)
  - 헌법에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으로 규정, 2021년 기준 취학률은 전국 평균 98.8%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육정보기술통계센터)

- 2023년 기준, 초등학교 순취학률*은 97.8%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나, 중학교 순취학률은 전국 평균 67.8%, 고등학교 순취학률은 전국 평균 38.8%로 크게 낮아지는 경향
  - 중학교 진학률**은 82.4%, 고등학교 진학률은 79.7%

    * 순취학률 : 특정 학교급의 취학연령인구 대비 실제 취학하고 있는 학생 비율
    ** 진학률 : 전체 졸업생 가운데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비율

- 교사-학생 비율(2022년 기준)
  - 초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22명, 중·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16명

- 대학 진학률(2023년 기준) : 20.37%
  - 전체 고등학교 졸업생 49,078명 중 10,000명 대학에 진학
  - 2021년 기준 총 대학(원)생 수는 39,337명(석사과정 2,009명, 박사과정 31명 포함)

- 성인 문자해독률 : 95.2% (2021년 기준)

나. 교육기관

• 초·중·고등학교 현황(2022년 기준)

구 분	학교 수(개)	학생 수(명)	교원 수(명)
초등학교	8,757	738,642	32,864
중·고등학교	1,836	585,051	35,584

출처 :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육정보기술통계센터

• 종합대학교 현황(2021년 기준)

구 분	학교 수(개)	학생 수(명)	교원 수(명)
종합대학교(국립)	5	39,337	3,052

출처 : 라오스 교육체육부 교육정보기술통계센터

- 1996년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대학 개혁 계획에 따라 기존 비엔티안 소재 3개 대학(비엔티안 교원양성대학, 공과대학, 의과대학)과 9개의 고등 전문학교(전기, 전자, 건축, 교통·운수, 관개, 임업, 농업 등)를 통합하여 라오스 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Laos) 설립
- 루앙프라방 소재 수파누봉(Souphanouvong) 국립대학교는 우리 정부의 대(對)라오스 첫 번째 EDCF 사업(2005년 12월 착공, 2008년 2월 개교)

• 그 외 전문대학 102개(국립 45개, 사립 57개), 교육대학 12개(국립) 등의 교육기관이 있음(2021년 기준)

• 코로나 이후 지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등록금 조달 문제 및 해외 취업 증가 등으로 상급학교 및 대학 진학률은 감소 추세

3. 종교

- 라오스 종교는 불교 69%, 토속신앙 28%, 기독교 1.5% 등으로 구성
  - 불교는 라오스인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라오스 주류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라오룸의 경우 90% 이상이 불교도로, 사고방식 속에 불교 사상이 깊이 내재(국가의 주요 행사는 물론 개인적인 행사나 관혼상제까지도 모두 불교식으로 거행되며, 결혼을 앞두거나 가족상을 당한 남성의 경우 일시적으로 절에 들어가기도 하고, 인사를 하거나 고마움을 표시할 때도 불교식으로 합장을 하는 것이 관례)
  - 사원은 전통적으로 촌락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마을 주요 행사나 회의 장소로 이용. 승려는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계층 중 하나

- 라오스 불교는 기원전 3세기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B.C. 269~232)의 전법 전래 또는 기원후 7~8세기에 상좌부불교가 전래되었다고 추정되나, 1354년 파 응움(Fa Ngum) 왕이 라오스 최초의 통일왕국인 란쌍(Lanexang) 왕국을 창건하면서 캄보디아인 왕비의 요청에 따라 크메르왕국으로부터 불교를 전격 도입
  - 라오스 불교는 스리랑카에서 캄보디아를 경유하여 전해진 상좌부불교
  - 왕정 시대에는 불교를 국교로서 보호, 1975년 공산화되면서 불교의 가르침과 공산주의 원칙이 일치하도록 강요하는 등 불교에 대한 당(라오인민혁명당)의 통제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 후반 경제 개방과 함께 완화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승려단·불교협회 등은 당 조직에 연계

- 라오스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자국민 대상 포교나 선교는 불허하며, 종교 활동은 당 조직인 국가개발전선(LFND : Lao Front for National Development)과 내무부에서 국가와 국민의 통합 차원에서 감독 및 관리

4. 언론

가. TV·라디오

- TV 방송국은 7개(국영 LNTV, Lao Star TV, TV LAO, PSTV, Lao Army TV 등), 라디오 방송국은 국영 라디오(LNR), Lao Youth Radio, CRI Vientiane 등 운영
  - 각 주별로 LNTV 산하 방송국 및 라디오 방송국 운영
-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및 주요 도시에서는 위성 안테나를 통해 인근국 및 러시아, 프랑스, 호주 방송, CNN, YTN, KBS WORLD 및 아리랑 등 국제방송 시청 가능
  - 대부분의 라오스인들은 정치선전 위주의 자국 TV 방송보다 태국 방송 선호
- 최근에는 YouTube를 통해 전 세계 매체의 콘텐츠 접근 가능

나. 신문

- 보도기관은 모두 정부 또는 라오인민혁명당 소속의 관영 언론으로, 엄격한 의미의 언론 자유는 존재하지 않음
- 정부 주최 행사의 경우, 공보문화관광부에서 모든 언론사에 일괄적으로 관련 보도자료 및 사진을 제공하고 있어 여러 언론사가 동일한 사진 및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가 대부분
- 주요 신문 : PASAXON, Pathetlao Daily, Vientiane Mai, Vientiane Times, Lao Security Newspaper, Lao People's Army News 등

- PASAXON('빠사손'은 '인민'이라는 뜻으로 라오인민혁명당 기관지)
  - 1950년 8월 13일 창간
  - 라오스에서 최초로 발간된 신문으로 라오인민혁명당의 전신인 '빠텟라오'의 선전 활동에 이용하기 위해 발행 시작
  - 기사는 주로 당 정책 홍보 및 사회문화에 집중
  - 1일 약 1,200부 발행
- Pathetlao Daily
  - 1968년 1월 6일 창간
  - 국영통신사(Lao News Agency)가 발행
  - 라오어·영어·프랑스어로 제작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라오어만 지면으로 발간(영어·프랑스어는 인터넷 신문 형태로 발간)
  - 라오스 정부 기관의 활동, 대외 관계 및 국제 뉴스를 다루며, 국제 뉴스는 주로 중국 신화통신 및 베트남 뉴스 기사를 인용(한국 연합뉴스와 제휴)
  - 1일 약 1,800부 발행
- Vientiane Mai
  - 1960년 Vientiane Post로 창간, 1975년 9월 1일부터 명칭 변경
  - 공보문화관광부 관할의 국영신문사
  - 라오스 현지어 신문 중 가장 대중적인 신문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 보도
  - 1일 약 3,000부 발행
- Vientiane Times
  - 1994년 4월 7일 창간
  - 라오스 유일의 일간 영자지(2004년부터 일간으로 발행)
  - 공보문화관광부가 발행 및 감독
  - 1일 약 3,500부 발행, 온라인 구독자 2천 명
  - 라오스 내 유일의 영자 일간지로, 정치·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전반을 다루나, 관영 매체로서 정부의 주요 정책 홍보, 해외원조 및 개발협력 사업 등에 주력

· Korea Herald 등이 소속된 아시아 영자신문 네트워크(ANN, Asia News Network)의 회원으로, 여타 통신사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가 많음

· BRNN(The Belt and Road News Network)에도 가입, 기사 공유

- Lao Security Newspaper

· 1995년 10월 10일 창간

· 공안부가 직접 발간하는 신문으로 공안부의 정책, 법률, 대외협력 및 각종 사건·사고(마약밀매, 인신매매, 사기 등) 중점 보도

· 1일 약 1,500부 발행

- Lao People's Army News

· 1965년 1월 20일 창간

· 라오스 국방부가 직접 발행하는 라오스 인민군 신문으로, 1965년 라오스 북부 후아판주 비엥싸이군 혁명기지에서 라오스 인민해방군 월간지로 발행 시작, 2008년부터 일간지로 발전

· 국방 분야 대내외 협력, 군사훈련, 정치, 국제 이슈 및 해외 군 관련 소식, 스포츠 등 보도

5. 관광

- 관광업은 광산·수력발전 사업과 함께 라오스의 주요 근간 산업 중의 하나로 코로나19 상황 이전인 2019년까지는 관광업의 급격한 활성화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정도였으나, 2020년 3월 30일부터 lock-down 시행 후 국경봉쇄 등으로 관광업에 어려움 발생

- 2021년 12월 3일 라오스-중국 직통 철도 개통 및 2022년 5월 9일 국경 재개방으로 관광업은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추세

- 1990년 이후 라오스 방문 외국 관광객 수는 매년 평균 20% 가량 증가해 왔으며, 2013년 약 378만 명, 2014년 약 415만 명, 2015년 약 468만 명으로 증가 후 2016년 423만 명, 2017년 386만 명으로 다소 감소함. 2018년 418만 명, 2019년 479만 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88만 명으로 전년 대비 81% 급감하였고, 2022년 라오스 국경 재개방에 따라 2022년 129만 명, 2023년 341만 명으로 회복세

- 관광 수입의 경우 2015년 7.25억 달러, 2016년 7.24억 달러, 2017년 6.48억 달러, 2018년 8.11억 달러, 2019년 9.34억 달러로 증가, 5년간 (2015~2019) 연평균 6.5%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2020년 코로나 여파로 전년 대비 77.2% 급락한 2.13억 달러로 감소. 이후 2022년 2.64억 달러로 회복세
  - 라오스 정부는 2024년 약 460만 명의 관광객, 7억 1,200만 달러의 관광 수익을 목표로 설정

- 대륙별 관광객 분포는 아세안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91.2%를 차지 (2023년 기준)

- 2023년 국가별 관광객 분포는 1위 태국(1,326,705명), 2위 베트남(837,632명), 3위 중국(641,314명), 4위 한국(165,997명), 5위 미국(62,660명) 순으로, 국경을 접하지 않은 국가 중에서는 한국이 1위

VI

우리나라와의 관계

1. 기본 관계
2. 주요 인사교류 현황
3. 경제·통상 관계
4. 문화·인적 교류
5. 영사·동포 관계
6. 협정 체결 현황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 기본 관계

- 1973. 11. 통상대표관계 수립
- 1974. 6. 외교관계 수립
- 1974. 8. 상주공관 개설
- 1975. 7. 단교(공관 철수)
- 1995. 10. 외교관계 재개
- 1996. 9.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 개설
- 2001. 1. 주한 라오스대사관 개설
- 2019. 5.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 무관부 개설

2. 주요 인사교류 현황

• 우리 인사의 라오스 방문

- 2000. 2.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 2002. 10. 최성홍 외교부 장관
- 2004. 11. 노무현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 2005. 7. 반기문 외교부 장관
- 2007. 7. 김영주 산업자원부 장관
- 2009. 5.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특사단 (이병석·정태근 의원)
- 2011. 2. 이선진 COP18 장관 특사
- 2011. 9. 박희태 국회의장
- 2012. 11. 김황식 국무총리 (ASEM 정상회의)
- 2015. 1. 정의화 국회의장
- 2015. 12. 황교안 국무총리 (공식방문)
- 2016. 5.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APT 노동장관회의)
- 2016. 7. 윤병세 외교부 장관 (ARF 외교장관회의)
- 2016. 9. 박근혜 대통령 (공식방문, 아세안+3 정상회의)
- 2019. 9. 문재인 대통령 (국빈방문)
- 2021. 8. 정의용 외교부 장관 (공식방문)
- 2022. 11. 정우택 국회부의장 (공식방문)
- 2024. 7.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 라오스 인사 한국 방문

- 1996. 5.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외교부 장관
- 1997. 10.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외교부 장관

- 2002. 5. 분냥(Bounnhang Vorachit) 총리
- 2002. 11.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외교부 장관
- 2004. 4. 솜사왓(Somsavat Lengsavad)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 2004. 9. 캄판(Khampane Philavong) 검찰총장
(국제검사협회(IAP) 서울총회)
- 2005. 12. 사만(Samane Vignaket) 국회의장
- 2007. 3.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상임부총리
- 2007. 6. 통룬(Thongloun Sisoulith) 외교부 장관 (ACD 외교장관회의)
- 2007. 9.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상임부총리
- 2008. 6. 부아손(Bouasone Bouphavanh) 총리
- 2008. 6. 솜디(Somdy Douangdy) 재무부 장관 (ASEM 재무장관회의, 제주)
- 2008. 7. 푸통(Pouthong Seng Akhom) 체육부 장관
- 2008. 9. 통반(Thongbanh Seng-Aphone) 공안부 장관
- 2008. 9. 수반(Soubanh Sirithirath) 국가주석실 장관
(제8차 국제마약단속회의)
- 2009. 6. 부아손(Bouasone Bouphavanh) 총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2009. 12. 부아시(Bouasy Lovanxay) 감사원장
- 2010. 6. 켐팽(Khempeng Pholsena) 총리실 장관 겸
수자원환경위원장
- 2011. 10. 통룬(Thongloun Sisoulith)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2011. 11.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상임부총리 (부산개발총회)
- 2012. 7. 통싱(Thonsing Thammavong) 총리
- 2013. 9. 빠니(Pany Yathortou) 국회의장
- 2013. 11. 춤말리(Choummaly Sayasone) 국가주석
- 2014. 4. 아상(Asang Laoly) 부총리

- 2014. 7. 통룬(Thongloun Sisoulith)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4. 12. 통싱(Thonsing Thammavong) 총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2015. 9. 분짠(Bounchanh Sinthavong)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 2016. 6. 솜께오(Somkeo Silavong) 공안부 장관
- 2017. 8. 살름싸이(Saleumxay Kommassith) 외교부 장관 공식방문
(FEALAC,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 2019. 10. 보셍캄(Bosengkham Vongdara) 공보문화관광부 장관
- 2019. 11. 통룬(Thongloun Sisoulith) 총리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 2022. 9. 살름싸이(Saleumxay Kommassith)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공식방문
- 2022. 11. 분펭(Bounpheng Phoummalaysith) 보건부 장관
- 2023. 5. 린캄(Linkham Douangsavanh) 국회 경제기술환경위원장 겸
라한 의원친선협회 회장
툼말리(Thoummaly Vongphachanh) 국회 문화사회위원장
말라이통(Malaithong Kommasith) 산업통상부 장관
비엥타비손(Viengthavisone Thephachanh) 감사원장
분캄(Bounkham Vorachit)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 2023. 6. 바이캄(Baykham Khattiya)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 2023. 10. 바이캄(Baykham Khattiya)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풋(Phout Simmalavong) 교육부 장관
- 2023. 11. 분펭(Bounfeng Phounmmalaysith) 보건부 장관

3. 경제·통상 관계

가. 양국 교역 현황

1) 교역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전년 대비)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금 액	75	50	71	64	101
	증가율	△10	△34	42	△9	57.3
수입	금 액	39	44	48	85	93
	증가율	30	12	11	75	9
무역수지		36	6	23	△21	8

출처 : 한국무역협회

2) 품목별 수출입 현황

- 주요 수출품은 화물자동차, 건설중장비, 자동차부품, 화장품 등

(단위 : 천 달러, %, 전년 대비)

구 분	품 목 명	2022		2023	
		수출 금액	증감률	수출 금액	증감률
1	기타 화물자동차	22,647	-	35,325	56.0
2	기타 건설중장비	8,164	150.6	20,150	146.8
3	압축점화식 2,500cc 이하	3,485	135.8	10,384	198.0
4	자동차 부품	3,828	△8.3	4,997	30.5
5	면류	2,510	29.0	3,474	38.4
6	메이크업, 기초화장품	1,670	△75.3	3,338	99.8
7	전기자동차	779	-	2,166	178.2
8	안료	-	-	1,822	-
9	의약품	1,980	5.0	1,625	△17.9
10	윤활유	1,001	△26.8	1,453	45.2
전체 수출		64,325	△8.8	101,161	57.3

출처 :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입품은 기타목재류, 의약품, 온도계, 알루미늄스크랩 등

(단위 : 천 달러, %, 전년 대비)

구 분	품 목 명	2022		2023	
		수입 금액	증감률	수입 금액	증감률
1	기타 목재류	34,716	41.2	51,054	47.1
2	의약품	28,188	-	25,276	△103
3	온도계	9,311	32.3	7,300	△21.6
4	기타 신발	2,411	5.5	2,258	△6.3
5	알루미늄 스크랩	1,492	50.5	1,456	△2.4
6	의류	1,089	64.1	1,036	△4.9
7	기타 유선전송장치	2,685	626.3	651	△75.7
8	기타 완구	1,329	137.2	638	△52.0
9	변성기	8	△84.2	385	4,840.0
10	미정제 동괴	-	△100.0	287	-
전체 수입		85,237	74.9	92,891	9.0

출처 : 한국무역협회

나. 인프라 수주 현황

• 우리나라의 전 세계 인프라 수주 규모는 2023년 304억 달러, 아세안의 인프라 수주는 26억 달러(전 세계 대비 비중 8.6%), 라오스는 0.56억 달러(전 세계 대비 비중 0.2%)에 불과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2		2023		
	수주액	비중	수주액	비중	전년 대비
세 계	30,981	100.0	30,388	100.0	△14.4
아세안(10개국)	8,788	28.4	2,605	8.6	△70.4
라오스	22	0.1	56	0.2	150.9

출처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s://www.icak.or.kr)
※ 연도별 금액은 공사 계약 금액 기준

다. 우리 기업 투자 및 진출 현황

- 투자 개요
  - 한국수출입은행 통계에 따르면, 1992년 최초 투자 이후 2023년까지 누계 투자 금액은 총 7억 달러로 5대 투자국(중국,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한국 순)
    ※ 라오스 기획투자부 통계로는 약 7.6억 달러

- 한국의 대(對)라오스 연도별 투자 실적

(단위 : 천 달러, 투자 기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누계 ('92~'23)
신고 건수	30	18	29	37	37	550
투자 금액	69,372	1,867	38,725	73,156	34,340	702,699
신규 법인 수	9	3	4	9	9	174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 기업 진출 현황

- 주요 현지 진출 기업 : 삼성전자, 부영, CJ대한통운, KB캐피탈, DGB캐피탈, BNK캐피탈, 웰컴캐피탈, SK에코플랜트, 한국서부발전, 흥화 등

라. 개발협력

1) 무상원조

• 개관

- 라오스는 우리의 ODA 중점협력국으로(2010~) 1989~2023년간 무상 총 4.4억 달러 지원(2023년은 잠정 수치)

※ 총 8억 달러 지원(무상 4.4억 달러, 유상 3.6억 달러)

- 2023년 기준 전체 수원국(161개국) 중 9위(무상원조 5위, 유상원조 14위)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1989~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지원액	149.52	23.52	27.12	28.98	88.23	37.66	56.20
유상원조	72.79	10.43	13.79	9.21	65.78	9.85	28.14
무상원조	76.72	13.09	13.33	19.77	22.45	27.80	28.06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잠정)	계
총지원액	72.53	65.09	41.55	64.65	78.32	68.43	801.82
유상원조	38.11	32.99	9.88	21.52	30.74	19.61	362.86
무상원조	34.42	32.10	31.68	43.13	47.58	48.82	438.96

출처 : OECD.Stat (총지출 기준) 2024.8월 추출 자료

2) 유상원조

- 개관
  - 유상원조 분야에서는 2004년 우리의 첫 대(對)라오스 사업인 '루앙프라방 국립대학 설립사업'을 승인한 이래 2024년 2월 기준 총 18개 사업 약 6.5억 달러 규모 승인
  - 2014~2017년 EDCF 기본약정 체결 (2013.11., 차관 한도 2억 달러)
  - 2016~2019년 EDCF 기본약정 체결 (2015.12., 차관 한도 3억 달러)
  - 2020-2023년 EDCF 기본약정 체결(2020.9., 차관 한도 5억 달러)
  - EDCF 전체 지원 승인액의 2.9% (58개국 중 15위)
  - 수자원·보건 분야에 57% 이상 지원
  - 현재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3건, 1.2억 달러),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1억 달러) 등 8건 진행 중

구분	사 업 명	분야	승인 연도	승인액 (백만 달러)	추진 단계
1	루앙프라방 지방국립대학교 설립사업	교육	2004	22.7	원리금 회수
2	GMS 북부도로 개선사업	교통	2007	22.4	원리금 회수
3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수자원	2007	37.2	원리금 회수
4	SEA 게임 주경기장 연결도로 개선사업	교통	2007	3.0	원리금 회수
5	GMS 북부 송전사업	에너지	2009	37.9	완공 평가
6	5개 공항 소방설비 공급사업 (소액차관)	공공행정	2009	3.0	원리금 회수
7	비엔티안시 소방설비 공급사업(소액차관)	공공행정	2009	3.0	원리금 회수

구분	사 업 명	분야	승인 연도	승인액 (백만 달러)	추진 단계
8	109 병원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소액차관)	보건	2009	3.0	원리금 회수
9	조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공행정	2011	28.5	자금 지출
10	사반나켓주 농촌종합개발사업	농수임	2014	46.0	자금 지출
11	세피안 세남노이 수력발전사업	에너지	2015	80.8	완공 평가
12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 사업	수자원	2015	53.1	자금 지출
13	비엔티안시 메콩강변 종합관리 사업(2차)	수자원	2016	57.6	자금 지출
14	공안부 현대식 병원 건립사업	보건	2016	65.0	본구매 입찰
15	국립의과대학병원 건립사업	보건	2017	102.6	상세 설계
16	문화유적지 소방방재시스템 개선사업	공공행정	2019	30.0	컨설턴트 선정
17	참파삭·사라반주 상수도 공급 사업	수자원	2019	44.0	자금 지출
18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 사업(보충융자)	수자원	2021	13.1	L/A 체결
총 18건				652.9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4. 문화·인적 교류

가. 양국 방문객 추이

- 라오스 방문 한국 관광객은 2007년 기준 1만 3,000명 수준이었으나, 라오스 정부의 한국 관광객 우대 조치, 한국 내 라오스 인지도 증가, 항공편 증편 등으로 꾸준한 증가세
  - 2008년 9월 일반여권 소지자의 라오스 입국비자 면제(15일) 조치
  - 2011년 12월 양국 간 직항 개설
  - 2018년 우리 국민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가 30일로 늘어 2019년 20만 3,191명의 한국인이 라오스 방문

-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한 2020~2021년에는 양국 간 직항노선 운항 전면 중단, 라오스 정부의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등에 따라 양국 상호 방문객이 급감하였으나, 2022년 하반기부터 라오스 국경 재개방과 직항노선 재개로 2023년 우리 국민 방문객 수는 16만 5,997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1~6월 기간에만 13만 4,246명으로 집계되어 연간 방문객 누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

- 초창기 한국 방문 라오스인들은 주로 정부 초청 장학생 또는 정·관계 인사들이었으나 2009년 이후 관광 목적 방문객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8년에는 1만 2,394명, 2019년에는 1만 3,378명의 라오스인들이 방문하였고, 코로나19 기간에 장학생·연수생 등 필수 목적 방문객으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서 방문객은 급감하였으나, 2022년 6월 이후 관광비자 발급 재개 및 장·단기 근로인력 도입 활성화에 따라 2023년 1만 2,660명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24년에는 1~6월 기간에만 1만 1,484명이 방문하는 등 대폭 증가 추세

한국-라오스 인적교류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라오스 → 한국	8,405	9,597	12,394	13,378	1,601	412	4,537	12,660	11,484 (1~6월)
한국 → 라오스	173,260	170,571	174,405	203,191	40,210	- (코로나)	26,008	165,997	134,246 (1~6월)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및 라오스 공보문화관광부

나. 노동 협력

- 2016년 9월 한-라오스 간 고용허가제(EPS) MOU가 체결된 이후 라오스 근로자들은 2018년 2월부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노동시장 진출(2024년 8월까지 총 3,168명 송출)
  - 초기에는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는 인원이 적어 송출 인력 쿼터를 채우지 못했으나, 현지의 한국 취업에 대한 관심과 한국어 교육기관 증가 등으로 선발시험 합격률 및 송출 인원이 지속 증가 중(2024년 라오스 인력 쿼터는 2,950명)

- 2021년부터 국내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라오스인을 계절근로자 인력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2024년 6월까지 송출된 계절근로자는 누계 총 7,949명
  - 2023년 2,330명이 송출된 데 이어 2024년에는 1~6월 기간에 5,278명이 송출되는 등 라오스 근로인력 도입이 상승세

다. 문화 교류

- 한국 문화공연단 2006년 이래 15차례 이상 라오스 방문 공연
  - 2006. 12. 'JUMP' 공연
  - 2007. 11. '브레이크 아웃' 공연 (비보이)
  - 2008. 6. 'Flying Higher' 공연 (비보이, 2회)
  - 2010. 10. 'Beautiful Minds' 공연 (클래식)
  - 2010. 11. 'Seoul Pops Orchestra' 공연
  - 2011. 4. '큰들문화센터' 공연 (전통공연, 3회)
  - 2013. 9. '한-라오스 우정의 콘서트' (한국 및 라오스 대중가수 합동공연)
  - 2014. 10. 'Dream Concert' (한-아세안 25주년 기념 '유키스' 등 아이돌 공연)
  - 2015. 11. 한-라오스 재수교 20주년 문화공연 (퓨전국악, 태권도, 비보이 등)
  - 2016. 5. 'Korea Festival in Asia' (국립발레단 공연)
  - 2016. 11. Feel Korea in Laos
  - 2017. 9. '한-아세안 교류의 해' 기념 한국 전통음악 콘서트
  - 2017. 11. 세계탈문화연맹 총회
  - 2017. 11. 한-라오스 현대미술 교류전
  - 2023. 6. 한-라오스 우호친선의 밤
- 한국 문화공연단은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고 특별한 문화 행사가 거의 없는 라오스에서 현지인들에게 좋은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라오스 내 한류 확산과 한국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

라. 체육 분야 교류

- 종목별 한국인 지도자 활동 현황 : 태권도(1), 야구(3), 레슬링(1), 축구(2)

- 체육 분야 한-라오스 교류 현황
  - 2005. 11. 태권도협회 선수단 시범 공연
  - 2009. 12. 이연택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장 라오스 방문
  - 2009. 12. 조정원 WTF 총재 라오스 방문
  - 2009. 12.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라오스 방문
  - 2011. 5. 박상하 세계정구협회장 라오스 방문
  - 2014. 10. 제1회 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최
  - 2016. 3. 대한체육회, 권영진 야구감독 파견
  - 2016. 6. 이만수 KBO 육성위원 방문, 문화체육부 차관 예방
  - 2017. 1. 제3회 한-라오스 친선 국제야구대회 개최
  - 2017. 11. 제4회 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최
  - 2018. 1. 제4차 한-라오스 친선 국제야구대회 개최
  - 2018. 3. 국기원배 태권도대회 개최
  - 2019. 11. 제5회 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최
  - 2021. 1. 제1회 대사배 야구대회 개최
  - 2021. 8. 제6회 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최 (온라인)
  - 2022. 7. 제7회 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최
  - 2023. 4. 라오스레슬링협회, 한국인 지도자(김수길 감독) 고용
  - 2023. 12. 제2회 대사배 야구대회 개최
  - 2024. 8. 라오스축구협회, 한국인 지도자(하혁준 감독, 이영규 코치) 고용
  - 2024. 9. 제8회 대사배 태권도대회 개최
  - 2024.12. 제3회 대사배 야구대회 개최 예정

• 주요 성과

- 2016년 이만수 감독(당시 KBO 육성위원)은 야구 불모지인 라오스에 야구를 전파하기 위해 국제 규격 야구장 건립, 지도자 파견, 물품 지원 등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2023년 라오스 야구대표팀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싱가포르를 상대로 8:7로 이겨 라오스 야구 역사 최초로 아시안게임 첫 승을 달성해 한-라오스 야구 협력 10년 만의 성과를 거양
- 2023년 2월부터 시작된 김수길 레슬링 감독의 지도 이후 라오스 레슬링 대표팀은 4개월 만에 동남아시안(SEA)게임 출전 이후 은메달 1개, 동메달 7개라는 역대 최고 성적 달성, 2023년 11월 김 감독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노동훈장 수훈

마. 한·라오스 친선협회(Korea-Laos Friendship Association) 활동

• 2008년 5월 한·라오스 친선협회(회장 오명환) 설립

- 비인가 단체로 2004년 5월 설립 후, 2008년 5월 정식 법인 설립 및 외교부에 등록
- 정식 등록 이후 현재까지 교육·의료 지원 및 봉사 활동을 활발히 전개

• 라오스측은 2009년 3월 라·한 친선협회(회장 캄수와이 前 주한대사)를 설립

• 정례적으로 양 친선협회 교류 진행 중

5. 영사·동포 관계

가. 동포 현황

- 동포 수 : 2023년 기준 3,200여 명 (재외국민 등록 679명)
- 초기 정착 동포들은 주로 중고차 수입 판매, 식당 운영, 농장, 제조업 등에 종사했으나, 점차 수력발전, 스포츠·여행, 금융, 부동산 임대 등 다양한 사업 분야로 진출 확대 중

나. 동포 단체 현황(2024년 기준)

- 한인회 : 1996년 5월 창립 (회장 : 양동혁)
- 재라오스한국경제인연합회 : 2020년 10월 창립 (회장 : 오세영)
- 한상회 : 2010년 3월 창립 (회장 : 이상호)
- 월드옥타 지회 : 2012년 5월 창립 (회장 : 김선문)
- 재라오스 청년회의소 : 2020년 9월 창립 (회장 : 정석진)
- 라오스 주재 한인선교사협의회 : 2001년 12월 창립 (회장 : 정재형)
- 한글학교 : 2003년 3월 개교 (교사 대표 : 하창석, 학생 수 : 60여 명)
- 민주평통 분회 : 2013년 7월 최초 의원 임명 (2023년 9월 제21기 위원 13인이 위촉되어 활동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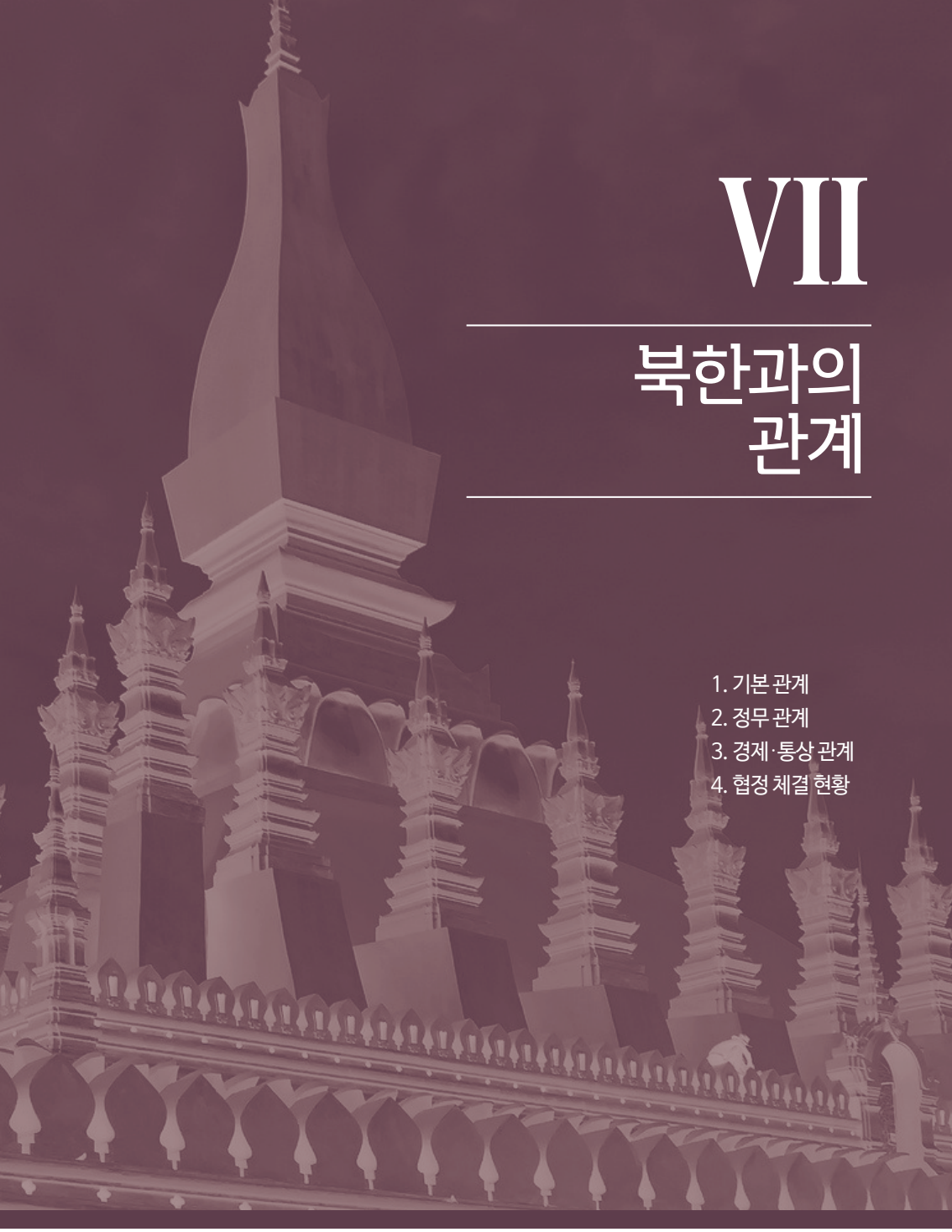
다. 주요 기업체 현황(2024년 기준)

단체 및 업체명	업 종
HHI Lao(흥화)	건설/부동산임대
부영 라오	금융/보험/서비스
KOWEPO(서부발전)	수력발전 운영
Lao Securities Exchange (한국거래소)	금융(증권)
젤라콘(제일산업개발)	제조업(아스콘)
CJ대한통운	운송/물류
삼성전자	유통/서비스
BNK캐피탈	금융(리스 및 소매금융)
Paul Golden Lao	유통(자동차부품/엔진오일 등)
웰컴 리싱 라오	금융(리스)
KB 코라오 리싱	금융(리스)
DGB 라오 리싱	금융(리스)
Xepian Xenamnoy Power Co. Ltd. (SK)	수력발전 운영
정원상사	제조(봉제)
현진스포텍	제조(봉제)
Solutek System Lao	ICT(IT 서비스 및 시스템 구축)
Lao-Korean College	교육(전문대)
Lao Top College	교육(전문대)
LOGOS College	교육(전문대)
Sharon International School	교육(초·중등학교)
Vientiane Gain Glory School	교육(유치원/초·중등학교)
Vision School	교육(보육원/유치원/초등학교)
CLUB GREEN COFFEE	농림업(커피 등)

출처 : KOTRA 비엔티안무역관, 대사관 자료 종합

6. 협정 체결 현황

- 1996. 5. 투자보장협정
- 1996. 5.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 2004. 4. 한-라오스 경제공동위 설립 시행약정
- 2004. 11. 한-라오스 이중과세방지협정 (2006.2월 발효)
- 2008. 6. 라오스,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 단기비자(15일) 일방 면제 조치
- 2009. 6. 한-라오스 외교관·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
- 2010. 4. 한-라오스 항공협정
- 2018. 9. 라오스, 한국인 일반여권 소지자 무사증 체류 기간 연장 (15일 →30일)
- 2021. 6. 한-라오스 국방협력 MOU



VII

북한과의 관계

1. 기본 관계
2. 정무 관계
3. 경제·통상 관계
4. 협정 체결 현황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 기본 관계

- 1974. 6. 외교관계 수립
- 1974. 9. 주라오스 북한대사관 개설
- 1998. 9. 주북한 라오스대사관 개설

  - 리영철 대사(2018.8. 주라오스 북한대사관 부임)
  - 께오 막카폰 대사(Keo Mackhaphonh, 2022.9. 주북한 라오스대사 임명, 2024.8.22. 신임장 제정)

2. 정무 관계

가. 양자 관계

- 북한과의 관계는 사회주의 동맹국으로 이념적 측면에서는 긴밀한 당정 간 교류 유지, 물적 교류는 거의 없는 상황
- 북한의 미사일·핵무기 실험 등에 대해서는 UN 회원국이자 핵비확산조약(NPT) 가입국으로서 아세안 국가들과 보조를 맞추어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별 이행 보고서 제출도 대부분 기한 내에 제출하는 등 대북제재 관련 결의들을 성실히 이행 중
  - 특히 201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고위급 교류를 자제하고 있으나, 아세안 국가 중 북한측 입장에 가장 우호적인 국가 중 하나
- 북한은 고위급 인사 등 제반 분야 협력 확대를 지속적으로 희망하고 있으나, 라오스는 대북제재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고려, 북한과의 교류를 최대한 low-key로 진행 중

나. 주요 인사교류 현황

- 북한 인사 라오스 방문

방문 일시	주요 인사
1991. 5.	이종옥 부주석
1992. 1.	이종옥 부주석
1994. 6.	강성산 총리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
2000	백남순 외무상

방문 일시	주요 인사
2001. 7.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005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2007. 11.	김영일 총리
2009. 10.	김태종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2009. 10.	리명산 무역성 부상 (제1차 공동위 개최)
2010. 7.	박의춘 외무상
2010. 11.	량만길 평양시 인민위원장 (천도 450주년 기념행사)
2010. 12.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
2011. 3.	정영철 노동당 정보문화위원회 부위원장
2011. 3.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
2011. 9.	로성실 여성동맹위원장
2012. 5.	리영호 총참모장
2012. 8.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2014. 6.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
2014. 8.	김정순 여성동맹위원장
2014. 8.	리수용 외무상
2014. 11.	리명선 무역성 부상
2015. 2.	리길성 외무성 부상
2015. 10.	리용남 내각 부총리
2016. 2.	김영철 노동당 비서
2016. 3.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2016. 6.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
2016. 7.	리용호 외무상

방문 일시	주요 인사
2019. 3.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
2019. 5.	강윤석 중앙재판소장
2019. 11.	리길성 외무성 부상
2024. 3.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

• 라오스 인사 북한 방문

방문 일시	주요 인사
1992. 4.	카이손(Kaysone Phomvihane) 국가주석
1993. 4.	통싱(Thonsing Thammavong) 라오인민혁명당 정치국원
1993. 12.	캄따이(Khamtay Siphandone) 총리
1994. 12.	캄따이(Khamtay Siphandone) 총리
2000. 12.	사만(Samane Vignaket) 국회의장
2001. 4.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외교부 장관
2002. 5.	분냥(Bounnhang Vorachith) 총리
2005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외교부 장관
2007. 5.	문케오(Munkeo Orabun) 문화공보부 장관
2007. 7.	통싱(Thonsing Thammavong) 국회의장
2008. 8.	부아손(Bouasone Bouphavanh) 총리
2008. 10.	통룬(Thongloun Sisoulith) 라오인민혁명당 대외관계위원장
2009. 9.	아상(Asang Laoly) 부총리 겸 라오인민혁명당 정부감찰위원장
2010. 5.	분통(Bounthong Chitmany) 라오인민혁명당 중앙조직위 위원장
2010. 8.	솜사왓(Somsavat Lengsavad) 상임부총리

방문 일시	주요 인사
2010. 9.	통반(Thongbanh Seng-aphone) 공안부 장관
2011. 9.	춤말리(Choummaly Sayasone) 국가주석 (당서기장 자격)
2011. 4.	판캄(Phankham Viphavanh) 교육체육부 장관
2011. 10.	보셍캄(Bosengkham Vongdara) 문화부 장관
2012. 4.	판캄(Phankham Viphavanh) 교육체육부 장관
2012. 5.	시사이(Sisay Leudetmounsone) 여성동맹위원장
2012. 5.	빠니(Pany Yathortou) 국회의장
2013. 5.	수칸(Soukanh Mahalath) 비엔티안 시장
2013. 7.	츠앙(Cheuang Sombounkhanh) 당 선전국장 (북한 정전협정 60주년 기념행사)
2013. 8.	판두앙칫(Phandouangchit Vongsa) 라오건설전선 위원장
2015. 7.	쌩누안(Sengnouane Saiyalat) 국방부 장관
2015. 10.	솜께오(Somkeo Silavong) 공안부 장관
2015. 10.	짠시(Chansy Phosikham) 라오인민혁명당 인사조직위원장 (노동당 70주년 계기)
2016. 6.	순톤(Sounthone Xayachack) 라오인민혁명당 대외관계위원장
2018. 12.	캄파오(Khamphao Ernthavanh) 외교부 차관
2019. 9.	판캄(Phankham Viphavahn) 부주석 순톤(Sounthone Xayachack) 당 대외관계위원장 통판(Thongphane Savanphet) 외교부 차관

3. 경제 · 통상 관계

- 북한은 라오스 공산혁명 과정에서 300만 달러 상당의 지원을 라오스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라오스 공산화 이후에도 군사용 탄약 및 총기류 부품 등을 상당량 지원
- 라오스 정부도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을 제공
  - 1998년 총 4만 달러에 달하는 주라오스 북한대사관의 미납 전기료, 수도료 및 임차료를 무효화하고 7만 달러를 기증
  - 2000년 주택용 목재 46만 달러 상당 지원
  - 2004년 및 2007년 북한 열차 사고 및 홍수 피해 지원금으로 각각 2만 5천 달러 지원
  - 2013년 및 2014년 북한 북부지역 홍수 발생 시 각각 10만 달러 지원
  - 2016년 북한 북부지역 홍수 발생 시 4만 달러 지원
- 라오스는 목재·커피·공예품 등을 북한에 수출해 왔으나 수출 규모는 3만 달러 내외로 미미하며, 북한으로부터 2019년 5만 달러, 2020년 1만 달러, 2021년 89만 달러 상당의 차량·부품·기계류를 수입한 바 있지만, 북한과의 교역 및 투자 등 경제협력은 저조한 편

4. 협정 체결 현황

- 1968. 6. 과학기술협정
- 1974. 10. 경제 및 기술협조협정
- 1977. 10. 항공협정
- 1989. 3. 비자면제협정 (관용·외교관 여권)
- 1990. 2. 외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1990. 5. 통신사 간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 1992. 7. 영사협정
- 1993. 12. 경제·기술 분야 협력협정
- 1994. 3. 공보분야 협력협정
- 1994. 6. 경제·과학·기술협조협정
- 1995. 9. 정보협력각서
- 1997. 5. 무역협정
- 1997. 8. 투자촉진·보호협정
- 2007. 11. 문화교류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2008. 6. 민·형사 사법공조조약
- 2008. 8. 경제교역과학기술공동위원회 설립협정
- 2008. 9. 양국 간 체육교류에 관한 양해각서

- 2008. 10. 라오인민혁명당-조선노동당 간 2008~2010년간 협조 및 대표단 교류에 관한 협정
- 2012. 8. 문화교류협력협정, 교육협력협정, 라오스 상공회의소-북한 상업회의소 간 협력 합의서
- 2013. 3. 라오스 과학기술부-북한 국가소프트웨어 산업총국 간 IT 협력협정
- 2015. 7. 국방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2016. 3. 라오스 공안부-북한 인민보안부 간 협력 합의서
- 2019. 3. 라오인민혁명당-북한 노동당 간 협력 양해각서
- 2020. 3. 외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
- 2021. 6. 공보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개정)
- 2021. 7. 교육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 2022. 4. 라오인민혁명당-북한 노동당 간 협력 합의서
- 2023. 9. 문화체육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VIII

부 록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2. 한-라오스 간 수교 공동성명서
3. 라오스 외교부 조직 현황
4. 라오인민혁명당 중앙위원 명단
5. 양국 역대 대사 명단
6. 양국 대사관 정보
7. 약어 정리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1. 주요 인사 인적사항

가. 국가주석

성 명	통룬 시술릿 (Thongloun SISOULITH)
생년월일	1945년 11월 10일 (후아판주 출생)
학 력	• 1967 라오스 후아판주 교육대학 학사 • 1978 구소련 GERZEN 교육연구소 어문학 석사 • 1984 구소련 모스크바 사회과학아카데미 국제관계사학 박사
경 력	• 1963~1965 후아판주 라오애국전선 교육청 상임직원 • 1969~1973 라오애국전선 하노이대표부 선임직원 • 1978~1979 비엔티안대학교 교수 • 1979~1981 교육부 장관 비서관 겸 국제협력과장 • 1985~1986 총리실 연구국장 • 1987~1992 외교부 차관 • 1993~1996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 1997~2001 국회 상임위 위원 및 국회 외교위원장 • 2001~2006 부총리 겸 기획투자위원장 • 2006~2016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 2016~2020 총리 (당서열 2위) • 2021~ 현재 국가주석 겸 당서기장 (당서열 1위)
방한 경력	• 2007. 6. 제6차 ACD 외교장관회의 계기 방한 • 2011.10. 제1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계기 방한 • 2013.11. 춤말리 국가주석 공식방한 계기 방한 • 2014. 7. 제4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계기 방한 • 2014.12.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산) 계기 방한 (총리 수행) • 2019.1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부산)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 계기 방한
가족 관계	• 부인과 자녀 3명

나. 총리

성 명	손싸이 시판돈 (Sonexay SIPHANDONE)	
생년월일	1966년 1월 26일 (후아판주 출생)	
학 력	• 1972~1976 중국 광서장족자치구 난닝시 소재 67소학교 • 1976~1979 후아판주 중등군사학교 • 1979~1982 후아판주 고등군사학교 • 1982~1983 비엔티안시 러시아어학원 • 1983~1987 소련(우크라이나) 오데사 군사고등학교 • 1994~1998 라오스 국립대학교 학사 (인문사회학부) • 2008~2009 국립 정치지도자학교 학사 (경제학 전공)	
경 력	• 1987~2000 군복무(소령) • 2001~2006 참파삭주 부주지사 • 2006~2014 참파삭주 주지사 (당서열 45위, 제8차 전당대회) • 2011~2014 참파삭주 당서기 겸 주지사 (당서열 34위, 제9차 전당대회) • 2014~2016 총리실 장관 • 2016~2019 부총리 (당서열 11위, 제10차 전당대회 정치국원) • 2019~2021 부총리 겸 기획투자부 장관 • 2021~2022 상임 부총리 (당서열 9위, 제11차 전당대회 정치국원) • 2022.12.~ 총리	
특기 사항	• 캄따이 시판돈 전(前) 국가주석(제4대, 1998~2006)의 장남이며, 2006년 제8차 전당대회에서 당 중앙위원(당서열 45위) 진출 후, 2016년 제10차 전당대회에서 정치국원(당서열 11위) 진출, 2021년 제11차 전당대회에서 정치국원(당서열 9위)	
가족 관계	• 부인과 자녀 4명	

다. 국가부주석

성 명	빠니 야토투 (Pany YATHOTOU)	
생년월일	1952년 2월 18일 (씨엥쿠앙주 출생)	
학 력	• 1975 베트남에서 금융학 전공 • 베트남에서 정치행정학 수료	
경 력	• 1976~1977 비엔티안 특별은행 예산국 부국장 • 1977~1978 정부은행 전문가연수원장 • 1978~1979 중앙은행 통화국 부국장 • 1980~1982 중앙은행 통화국장 • 1983~1986 중앙은행 인프라건축투자국장 • 1987~1992 중앙은행 부장 • 1997~2001 중앙은행장 • 2002~2006 당 정치국원 겸 국회부의장 제5대 국회의원 • 2007~2010 국회부의장 (제6대 국회) • 2011~2016 국회의장 (제7대 국회 / 당서열 4위) • 2016~2020 국회의장 (제8대 국회 / 당서열 3위) • 2021~현재 국가부주석 (당서열 3위)	
방한 경력	• 2013.9월 방한 ※ 방북 : 2012.5월 (국회의장 자격)	
특기 사항	• 정치국원 내 유일한 몽족 출신 • 농촌 개발에 관심 다대	
가족 관계	• 남편과 딸 1명 ※ 남편은 농림부 차관 역임	

라. 국가부주석

성 명	분통 칫마니 (Bounthong CHITMANY)	
생년월일	1949년 7월 3일 (보께오주 출생)	
학 력	• 1975~1979 베트남에서 경영학 석사 • 1983~1987 구소련 모스크바에서 농촌개발건설학 박사	
경 력	• 2001. 3. 당 중앙위 조직부장 (당서열 34위, 제7차 전당대회) • 2006. 3. 인민혁명당 중앙조직위원장 (당서열 12위, 제8차 전당대회) • 2011. 3. 감사위원장 (당서열 9위, 제9차 전당대회) • 2016~2020 부총리 겸 감사위원장, 반부패위원장 (당서열 4위, 제10차 전당대회 정치국원) • 2021~현재 국가부주석 (당서열 4위, 제11차 전당대회 정치국원)	
방한 경력	없음 ※ 방북 : 2010.5월 (인민혁명당 중앙조직위원장 자격)	

마. 국회의장

성 명	싸이솜폰 폼비한 (Xaysomphone PHOMVIHANE)	
생년월일	1956년 12월 12일 (후아판주 출생)	
학 력	• 모스크바 사회과학 아카데미 박사(정치경제 전공)	
경 력	• 1987~1989 사바나켓주청 근무 • 1989~1993 사바나켓주 부지사 • 1993~1995 사바나켓주 지사 • 1995~1997 재무부 장관 • 1998~2001 총리실 장관 • 2001~2006 국회 외교위원장 (5대 국회) • 2006~2016 국회부의장 (6대, 7대 국회) • 2016~2020 라오국가개발전선 의장 (당서열 7위) • 2021~현재 국회의장 (9대 국회/ 당서열 5위)	
방한 경력	• 수차례 방한 경험 (자녀 2명 한국 유학 경험) ※ 방북 : 2018. 9. (국가개발전선 의장 자격)	
가족 관계	• 부인과 자녀 2명 ※ 라오스 국부(國父)인 '카이손 폼비한' 前 국가주석의 장남	

바.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성 명	살름싸이 꼼마싯 (Saleumxay KOMMASITH)	
생년월일	1968년 10월 31일 (후아판주 출생)	
학 력	• 1992 러시아 모스크바대학 국제관계학 석사 • 1997 호주 멜버른 모나쉬(Monash)대학 국제관계 및 개발학 석사	
경 력	• 1992~1994 외교부 호주 담당관 • 1994~1996 외교부 유럽아메리카국 미국 담당관 • 1998~2000 외교부 유럽아메리카국 서유럽 부과장 • 2000~2003 주유엔대표부 2등서기관 • 2003~2004 외교부 국제기구국 유엔과장 • 2004~2007 외교부 국제기구국 부국장 • 2007~2011 외교부 국제기구국 국장 • 2011~2012 외교부 차관보 • 2012~2013 주유엔대사 • 2014~2016 외교부 차관 (다자업무) • 2016~2020 외교부 장관 (당서열 50위) • 2021~2022 외교부 장관 (당서열 13위) • 2022. 6.~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당서열 13위)	
방한 경력	• 2009.11. UN 군축비확산 관련 컨퍼런스(제주) 참석차 • 2017. 8. 양자 공식방문 및 제7차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제8차 FEALAC, 부산 아세안문화원 개원식 참석 • 2019.11.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회 한-메콩 정상회의 수행 • 2022. 9. 양자 공식방문	
가족 관계	• 부인과 자녀 2명	

2. 한-라오스 간 수교 공동성명서

한-라오스 간 수교 공동성명서

1995년 10월 25일, 서울

대한민국 정부와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정부는,

국제연합 헌장의 목적 및 원칙과 국제법의 일반 원칙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관계와 협력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하여,

이 공동성명서의 서명 일자를 기해 양국 간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공동성명서에 서명하였다.

1995년 10월 25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라오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3. 라오스 외교부 조직 현황

(2024년 6월 기준)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Mr. Saleumxay Kommasith	(장관 직속)	The Office of the National Boundary Committee (국경위원회)
	제1차관 Mr. Thongphane Savanphet	ASEAN Dept. (아세안국)
		Treaties and Law Dept. (조약법률국)
		Economic Affairs Dept. (경제국)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외교연구원)
	제2차관 Mr. Bounleua Phandanouvong	Permanent Secretary Office (사무차관실)
		Inspection Dept. (감사국)
		Europe and America Dept. (유럽미주국)
		Consular Dept. (영사국)
		비엔티안특별시 및 각 지방(州) 외무국 협력
	제3차관 Mr. Ting Souksanh	Organization and Personnel Dept. (조직인사국)
		Finance Dept. (재무국)
		Lao Overseas Affairs Dept. (재외국민국)
		Diplomatic Service Bureau (외교단지원국)
	제4차관 Mr. Phoxay Khaykhamphithoune	Asia, Pacific and Africa Dept.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국)
		International Organization Dept. (국제기구국)
		Press Dept. (공보국)
		Protocol Dept. (의전국)
		라오스-태국, 라오스-캄보디아 협력 SOM

4. 라오인민혁명당 중앙위원 명단

- 정위원 71명 및 예비위원 10명

(2024년 8월 기준)

서열	성 명	현 직 책
1	Dr. Thongloun Sisoulith	국가주석 (前 총리)
2	Dr. Phankham Viphavanh	前 총리
3	Ms. Pany Yathotou	부주석 (前 국회의장)
4	Dr. Bounthong Chitmany	부주석 (前 부총리 겸 감찰원장)
5	Dr. Xaysomphone Phomvihane	국회의장 (前 라오국가개발전선 의장, 카이손 前 2대 국가주석의 아들)
6	Gen. Chansamone Chanyalath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7	Dr. Khamphanh Phommathat	감찰원장 (前 당 중앙위 선전위원장)
8	Dr. Sinlavong Khoutphaythoune	라오국가개발전선 의장 (前 비엔티안특별시장)
9	Dr. Sonexay Siphandone	총리 (前 부총리 겸 기획투자부 장관, 캄따이 前 4대 국가주석의 아들)
10	Prof. Dr. Kikeo Khaykhamphithoune	부총리 (前 공보문화관광부 장관)
11	Lieutenant Gen. Vilay Lakhamfong	부총리 겸 공안부 장관
12	Ms. Sisay Leudetmounsone	당 인사조직위원장 (前 국회부의장)
13	Mr. Saleumxay Kommasith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14	Dr. Khamphanh Pheuyavong	당 선전위원장 (前 우돔싸이 주지사)
15	Dr. Anouphab Tounalom	비엔티안시 당서기장, 시의회의장

서열	성 명	현 직책
16	Ass. Prof. Dr Thongsalith Mangnomek	당 중앙위 사무처장 (前 국립정치행정원장)
17	Dr. Sounthone Sayachack	국회부의장 (前 당 대외관계위원장)
18	Dr. Viengthong Siphandone	대법원장 (前 국가감사원장)
19	Prof. Dr Chaleun Yiapaoher	국회부의장 (前 총리실 장관 겸 정부 대변인)
20	Mr. Khambay Damlath	국회부의장 (前 라오국가개발전선 부의장)
21	Mr. Sommad Pholsena	국회부의장 (前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22	Dr. Khampheng Saysompheng	후아판 주지사 (前 총리실 장관)
23	Lt. Gen. Souvone Leuangbounmy	국회부의장 (前 국방차관 겸 사무처장)
24	Mr. Khamjane Vongphosy	총리실 장관 (前 기획투자부 장관)
25	Mr. Khamphanh Sitthidampha	비엔티안 주지사 (前 대법원장)
26	Mr. Khampheuy Bouddavieng	前 라오국가개발전선 부의장
27	Lt. Gen. Dr Thongloy Silivong	국방부 차관 (前 사이솜분 주지사, 사관학교장)
28	Dr. Kongkeo Xaysongkham	국립경제사회과학원장 (前 보리캄싸이 주지사)
29	Dr. Inlavanh Keobounphanh	라오국가개발전선 부의장 (前 여성연맹 위원장)
30	Mr. Khamkhanh Chanthavisouk	루앙프라방 주지사
31	Ms. Khemmani Pholsena	국가주석실 장관 (前 산업통상부 장관)
32	Prof. Dr. Boviengkham Vongdara	기술통신부 장관 (前 과학기술부 장관)
33	Dr. Sonethanou Thammavong	보리캄싸이 주지사 (前 국립경제사회과학원장)

서열	성 명	현 직 책
34	Dr. Vilayvong Bouddakham	내무부 장관 (前 참파삭 주지사)
35	Dr. Phet Phomphiphak	기획투자부 장관 (前 농림부 장관)
36	Mr. Phongsavanh Sitthavong	싸야부리 주지사
37	Mr. Vanxay Phengxoumma	당 중앙위 사무차장 (前 후아판 주지사)
38	Mr. Santiphab Phomvihane	재무부 장관 (前 사바나켓 주지사, 카이손 前 2대 국가주석의 아들)
39	Ms. Bounkham Vorachit	천연자원환경부 장관 (前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분냥 前 6대 국가주석의 장녀)
40	Dr. Buakhong Nammavong	총리실 수석장관 (前 보께오 주지사)
41	Mr. Sonexay Sitphaxay	前 총리실 장관
42.	Ms. Baykham Khattiya	노동사회복지부 장관
43	Mr. Alounxay Sounnalath	참파삭 주지사 (前 총리실 수석장관)
44	Ms. Suansavanh Viyaket	공보문화관광부 장관
45	Dr. Phoxay Sayasone	에너지광산부 장관 (前 살라반 주지사)
46	Mr. Laopaoxong Navongxay	당 선전위원회 부위원장
47	Mr. Let Xayaphone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前 앗따쁘 주지사)
48	Major Gen. Khamlieng Outhakaysone	국방부 차관 겸 참모총장 (前 싸이솜분 주지사)
49	Mr. Bounchom Oubonpaseuth	사바나켓 주지사 (前 재무부 장관)
50	Mr. Khamfoy Vannasane	퐁살리 주지사
51	Mr. Leklay Sivilay	세콩 주지사
52	Mr. Viengsavath Siphandone	루앙남타 주지사 (前 공공사업교통부 장관)

서열	성 명	현 직책
53	Mr. Khamlay Sipaseuth	당 중앙위 사무차장 (前 루앙남타 주지사)
54	Ass. Prof. Dr. Phout Simmalavong	교육체육부 장관
55	Mr. Vanxay Fongsavanh	캄무안 주지사
56	Dr. Bounfeng Phoummalaysith	보건부 장관
57	Ms. Aly Vongnorbountham	여성연맹 위원장 (前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58	Mr. Phayvy Syboualypha	법무부 장관
59	Ass. Prof. Phouvong Ounkhamsaen	국립정치행정원장
60	Dr. Thongchanh Manixay	보께오 주지사 (前 내무부 장관)
61	Mr. Bounchanh Sivongphanh	씨엥쿠앙 주지사
62	Mr. Thongsavanh Phomvihane	당 대외관계위원장 (前 외교부 차관, 카이손 前 2대 국가주석의 아들)
63	Mr. Xaysana Khotphouthone	검찰총장
64	Mr. Atsaphangthong Siphandone	비엔티안특별시장
65	Dr. Leeber Leebouapao	국회 기획재정감사위원장
66	Ms. Boutsady Thanameuang	前 당 중앙위 조직인사관리국장
67	Major Gen. Kongthong Phongvichith	공안부 차관
68	Major Gen. Dr Vongkham Phommakone	국방부 차관 겸 병참국장
69	Ms. Pingkham Lasasimma	국회 경제기술환경위원장
70	Major Gen. Vanthong Kongmany	앗따쁘 주지사
71	Dr. Daovong Phonekeo	사라반 주지사 (前 에너지광산부 장관)

서열	성 명	현 직 책
예비 1	Mr. Malaithong Kommasith	산업통상부 장관 (살름싸이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의 동생)
예비 2	Mr. Bounkhong Lachiamphone	우돔싸이주 부지사
예비 3	Mr. Vansy Kuamua	공보문화관광부 차관
예비 4	Mr. Vilayvanh Bouddakham	감찰원 부원장
예비 5	Mr. Linkham Douangsavanh	농림부 장관 (前 국회 경제기술환경위원장)
예비 6	Mr. Viengthavisone Thepphachan	감사원장
예비 7	Mr. Monxay Laomuaxong	청년연맹 사무총장
예비 8	Mr. Bounta Thepphavong	국회 문화사회위원장
예비 9	Ms. Amphaivone Lombounpheng	국회 사무처장
예비10	Col. Ms. Livong Laoly	내무부 차관

5. 양국 역대 대사 명단

가. 역대 주라오스 대한민국 공관장

역대	성 명	재임 기간
초대	최근배	1996. 8. ~ 1998. 8.
2대	정화태	1998. 8. ~ 2001. 2.
3대	장철균	2001. 2. ~ 2003. 8.
4대	김의택	2003. 8. ~ 2005. 5.
5대	정순석	2005. 5. ~ 2007. 3.
6대	박재현	2007. 3. ~ 2010. 2.
7대	이건태	2010. 2. ~ 2013. 6.
8대	김수권	2013. 6. ~ 2016. 4.
9대	윤강현	2016. 5. ~ 2017. 9.
10대	신성순	2018. 1. ~ 2020.12.
11대	임무홍	2020.12. ~ 2022. 9.
12대	정영수	2022.10. ~ 현재

나. 역대 주한 라오스 공관장

역대	성 명	재임 기간
초대	Thongsavath Praseuth	2001. 3. ~ 2006.12.
2대	Soukthavone Keola	2007. 2. ~ 2011.10.
3대	Khamla Xayachack	2011. 10. ~ 2015. 5.
4대	Khamsouay Keodalavong	2015. 6. ~ 2019. 1.
5대	Thieng Boupha	2019. 2. ~ 2022.10.
6대	Songkane Luangmuninthone	2022.11. ~ 현재

6. 양국 대사관 정보

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

주 소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Lao-Thai Friendship Road, Watnak Village, Sisattanak District Vientiane Capital, Lao P.D.R.
전 화	856-21-352-031~3 856-21-255-770~1 (영사과)
근무시간	08:30~12:00, 13:30~17:00 (월~금)
시 차	우리나라보다 2시간 늦음

나. 주한 라오스대사관

주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57-33
전 화	02-796-1713~4
근무시간	09:00~12:00, 13:00~17:00 (월~금)

7. 약어 정리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RF	ASEAN Regional Forum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SEM	Asia-Europe Meeting	아시아유럽정상회의
CCM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확산탄금지협약
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
CLMV	Cambodia, Laos, Myanmar, Viet Nam	
EAS	East Asian Summit	동아시아정상회의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외직접투자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GMS	Greater Mekong Sub-region	메콩경제권
IAI	Initiative for the ASEAN Integration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유엔새천년개발목표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UN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기구
UNODC	UN Office on Drugs and Crime	유엔마약범죄사무소
UXO	Unexploded Ordnance	미폭발물(불발탄)
WB	World Bank	세계은행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라오스 개황

발 행 일 2024년 9월

발 행 처 외교부 동남아2과

편집디자인 나무와숲 (02-3474-1114)

인 쇄 (사)우리들행복나눔인쇄사업단

ISSN 2005-9116 비매품

※ 이 책의 내용은 http://www.mofa.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262000-000345-14

ISSN 2005-9116